

문화 만개

여름호

vol. 03 | 2016. 07

문화만개 | 여름호 | vol. 03 | 2016. 07



www.dscf.or.kr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꿈쇼 SHOW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특강



7.26 TUE
유지영 배우 박해미
도전하는 삶

7.28 THU
게그맨 최효중
행복한 인생,
어렵지 않아요!

8.2 TUE
비선디자이너 최병석
꿈을 디자인하다

8.4 THU
푸드살인니스트 박준우
내 꿈을 부탁해!

접수 | 7.4(월)~선착순 대상 | 12세 이상 청소년 및 가족(최대 4인 신청)

시간 | 오후 2:00 장소 | 웃는얼굴아트센터 외룡홀 참가비 | 각 천원

[주최]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 문의 | 584-8721-2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소통·화통·방통 콘서트 시리즈 2

정동하 & Dooboon

SUMMER NIGHT CONCERT

2016. 7. 22^{Fri} 7:30pm

웃는얼굴아트센터 외룡홀

주최 |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후원연방 | 10대 이상 2만명
입장료 | 전석 50,000원 예매 | 152-500-8796
www.dofac.or.kr



Dooboon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겪는 싱글밤의 좌충우돌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꽃비'로 내려옵니다

꽃비

"짜장 어둠 속에 빗방울이 소리없이 떨어지는 거야."

2016. 7. 20. WED PM 7:00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출

주최 : 달서문화재단 문의 : 053-584-9711

꽃을 피우며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盛夏의 길목에서 문화만개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2016년 달서구는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비전 아래
'누리는 문화도시'로 피부에 와 닿는 문화 복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중요한 문화의 현장으로 여기며,
지역민의 일상을 문화로 만들기 위한 풍요로운 문화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예술의 저변확대도 함께 이뤄나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흐르는 문화를 알아보고, 예술을 만들어가며,
예술인들의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달서문화재단에서
세 번째 문화만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여름 호에는 서거 400주기 셰익스피어 특집 지면을 비롯해
인문학 칼럼과 문화예술인의 에세이 및
'당신이 꽃입니다', '재즈 인 대구', '스마일토크콘서트', '아트힐링특강' 등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열린 전시·공연·특강 내용과
'장미꽃 필 무렵', '신사문화체험축제', '스 문화콘서트' 등 지역에서 펼쳐진
축제와 행사의 이모저모도 함께 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문화의 이야기 속에 예술과 철학이 스며있는
문화만개에서 여러분만의 문화의 향기를 엮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문화를 쓰다 8.

- | [인문학] '통찰'하려면 '멍~'부터 때려라_최재목
- | [미술] 500년 전 조선에 피카소가 있었다_이성낙

특집 William Shakespeare 16.

- | [음악] 셰익스피어 인 클래식_권순현
- | [연극] 셰익스피어는 현재 진행형_안재범
- | [무용] 셰익스피어 인 발레_강정선

목차

Contents

발행인 |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 이병배
 기획/편집 | 김은주, 김은미, 이주현, 궤은정
 발행일 | 2016년 7월 1일
 발행처 |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대구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웃은얼굴아트센터 별관 2F
 대표전화 | 053)684-9711~2
 홈페이지 | www.dsct.or.kr
 디자인/제작 | 밝은사람들 053)660-6600

2016년 VOL.3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World & Culture

34.

| 뮤지컬 <감브리누스>에 담긴 문학과 예술_박정곤

Art & Artists

42.

- | [전시] 양향옥 최복호의 콜라보 '당신이 꽃입니다'
- | [공연] 소프라노 신델라와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드라마틱 콘서트
성민제와 조윤성의 '재즈 인 클래식'
아빠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 | [특강] 인문학으로 만나는 파리, 그리고 인상주의

Inside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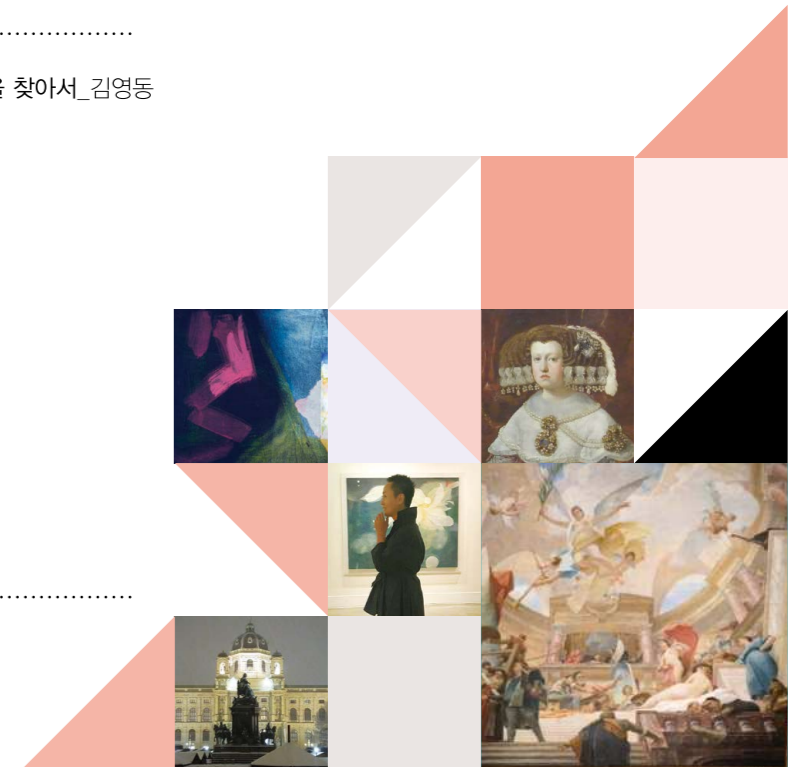
54.

- | [유럽미술기행] 스페인 미술 속 휴머니즘을 찾아서_김영동
- | [재즈수첩] Jazz Festival에서_오종대
- | [여행드로잉] 제주의 푸름을 그리다_리모

열매를 맺으며

70.

| 단신



‘통찰’하려면 ‘멍~’부터 때려라

글 최재목

□ 흘러내리는 것이 어디 살 뿐이라

흘러내리는 것이 모래알만은 아니다.

가끔 미운 살들이 빠져나와, 몸에서 슬슬 흘러내릴 때가 있다.

바닷가에 앉아 모래를 거머쥔 때 꼭 쥔 손가락 사이사이로, 모래알이 슬슬 빠져나가는 경험이 있으리라. 것처럼, 몸에서도 무언가가 슬슬 빠져나가고 있다. 또 어디선가는 슬금슬금 솟아오른다. 드디어 몸은 내 생각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내 삶의 6부 7부 능선에서 군살덩이들이 출몰하기 시작한다. 그럴 때, 조금씩 서글퍼진다. 믿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나를 만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밖에 나오기 싫어지고, 자꾸 그런 부위를 핏피집한 옷으로 가리고 싶어진다. 목욕탕에 가서도 튀어나온 살 더미를 남에게 보이기 민망하여, 자꾸 구석진 데로 물러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다.

다행히 살은 빼면 된다. 아니 빼지 않더라도 적당히 그냥 그냥 참으며 지내면 된다. 사실 남들은 나의 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몸보다 더 골칫거리인 생각이다.

줄줄 흘러내리는 것, 출렁이는 것이 살만은 아니다. 살보다 더 큰 골칫거리가 바로 생각이다. 나이가 들고, 할 일이 많을수록,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짙짙 새고, 줄줄 흘러내린다. 하, 얼마나 많은 번뇌, 망상인가. 스트레스, 잡생각, 근심걱정거리... 들판의 잡초처럼 그득하다.

□ 몸은 ‘우수(憂愁)’의 보따리

어쩌랴! 몸이 있다는 것은 ‘우수(憂愁)’의 보따리를 안고, 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

그래서 장자(莊子)는 말했다.

“인간은 우수와 더불어 태어났다(人之生也, 與憂俱生)”고.

어차피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아모르파티(amor fati). 운명을 사랑하라!

흘러내리고 빠져나온 것들과 맞서지 말고, 토닥토닥 즐기며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런 것들의 의미를 ‘통찰(洞察)’하는 눈을 가져야 하리라. 흘러내리고 빠져나온 것들의 의미를 ‘꿰뚫어보는 눈’ 말이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하고, 사랑하는 연습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사랑하라? 또한 위로하고 치유하라?

□ ‘통찰(洞察)’아니 ‘동찰(洞察)’?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통찰(洞察)’은 예사롭지 않은 말이다. 보통 사전에서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제 한 발자국 더 들어서서 생각해보자. 재미있게도 통찰의 ‘통(洞)’은 ‘밝다~꿰뚫다~통하다~통달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굴~굴짜기~동네~굴(窟)’의 뜻도 있다. 이때는 ‘동’으로 읽는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굴=동굴’이란 의미인 것 같다. 신화에서나 고대사회에서 자주 보이는 동굴. 거기서 무언가 인간~문명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사실 동굴은 막히고, 가려지고, 어둡고, 드러나지 않은 공간이다. 표면에서 ‘사라진-감추어진-은폐된’ 곳이다. 겉으로 솟아난 저 남성의 거시기 보다는 여성의 성기나 자궁을 닮았다. 생성과 창출의 공간이다.

그 속은 들여다 볼 수 없다. 어둡고 껌껌하다. 바깥의 소리도 형체도 직접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들리거나 비쳐야 한다. 은근히, 은은히, 조심스레 다가서야 하는 곳이다. '상자 속'이나 '팔호로 묶여 있는 어떤 것'처럼, 바깥과 직접적이지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밖으로 나와서 우뚝 서야 한다. 그럴 때 위대한 존재로 살 수 있다. 그 안쪽에 주저 앉으면 끝이다. 자폐증 환자가 어서는 안 된다.

'얼굴'이란 말이 '얼'(魄→혼백=정신)의 '굴(窟)'에서 왔다고 하듯, 동굴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질적~근원적~근본적~심층적' 의미이다. 둘째, 무언가 '새로운 것~신비한 것'을 갖고 닳는 이른바 '준비~수련~수행'의 의미이다. 이 두 가지가 오버랩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밝다~깨롭다~통하다~통달하다'는 '통'은 '굴=동굴'의 '동'과 함께 입을 때 더 잘 이해되는 것 같다. 무언가를 행하니 깨롭으려면 '근원적~심층적', '준비~수행'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달하려면 근원적으로 고뇌하라!"는 메시지이다.

살피다는 뜻의 '찰(察)'은 섬세하고 미세한 살핌이다. 내면적~영성적 눈(안목)을 의미한다. 드러나서 보여야 보는 것(=견/見), 일부러 바라보는 것(=시/視)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통+찰'은 '동+찰'로 보아도 될 듯하다. 통달하려면 근원에 들어서서 준비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때 신의 한 수를 얻을

수 있다. 세상에 공짜로, 거저 오는 것은 없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국물도 없다.

‘통=동’+‘찰’은 ‘멍 때리기’에서

‘통=동’+‘찰’이라는 지점에 도달해서, 한 가지 더 돌이켜 볼 것이 있다.

‘무언가를 행하니 꿰뚫어’ 보는 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깥 세계로 향한 눈을 차츰 ‘흐릿흐릿하게~가물가물하게~거무스럼하게(玄)’ 하는 노력이다. 이런 눈은 ‘떠 있으면서 반쯤 감고 있는 눈’이다. 불상을 예로 든다면, 저 ‘반가사유상’처럼 ‘뜬 듯 감은 듯한 눈’이다. 그럴 때 시선은 내면으로, 안으로 향한다.

‘관세음(觀世音)’의 ‘관(觀)’처럼, 내면에서 관조하는 ‘무심한~무관심한 눈(안목)’이 생겨난다. 이것은 내면적~영성적 눈, 즉 ‘굴=동굴’로 들어서는 정신적 사업이다.

노자의 표현을 빌려서 풀이하면, 현실의 날카로운 소유~욕망의 시선으로부터 자아를 ‘흐릿흐릿하게~가물가물하게~거무스럼하게’ 만들어서 ‘존재 자체’로 눈을 돌리는 일이다. 세속적~현실적~현상적인 소유의 관점(관심)으로부터 자꾸 시선을 흐릿하게 해 가는, 아득히 멀어져 가는 기법이다. 한 마디로 ‘멍 때리기’이다. 이 멍 때리기에서 수많은 탁월함(妙)들이 생겨난다. 그런 생성과 창출의 관문이 멍 때리기이다. ‘현지우현(玄之又玄), 중묘지문(衆妙之門)’!

멍~한, ‘무관심적 관조’

뇌도 휴식이 필요하다. 보통 명상과 수면에서 우리는 ‘생각의 쉼, 정지’를 얻는다.

무관심하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연습은 스스로를 정확시켜 평형을 되찾는 일이다. 일그러지거나 뒤틀린 영혼을 원래대로 자연스레 회복~복구시켜주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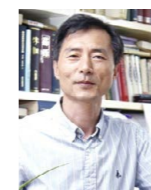
주변을 되돌아보라. 여기 저기 ‘육, 육’ 치받고 부딪힌다. 내면의 화(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한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 한다. 말끝마다 ‘남~바깥

탓’이다. 그러니 모두 쓸어버리고 싶다는 감정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대한민국은 지금 잠시 모두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넛을 놓고), ‘본밀 마음=바탕(바탕) 마음’으로 돌아가서, 평온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긴장된 뇌를 이완하여, 생기를 찾는(리프레시)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때마침 ‘멍 때리기 대회(Space out Contest)’가 열린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으나 되새겨 보니 멋지다! ‘근원적~심층적’ 영성의 샘물을 길어내는 ‘준비~수행’의 하나로 족한 것 같다. 앞으로 ‘전 국민 멍 때리기 대회’로 차츰 확대되는 것도 좋겠다.

‘정신적 경련’을 느긋하게 풀어주며, 그 ‘떨림’에서 경험한 내용을 자아가 성숙하는 통찰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깥으로 향하는 날카로운 생각과 눈빛을 잠시 거두고, 자신의 내면적 동굴로 걸어 들어오는(되돌아오는) 일이다. 그것은 멍 때리기이다. 이런 눈은 ‘뜬 듯 감은 듯한 눈’, 내면에서 관조하는 ‘무심한~무관심한 눈’이다. 자기 본밀의 ‘얼(정신)이 살아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서야, 거기서 통찰이 생겨난다. ‘통찰’은 동굴에서 살피는 ‘동찰’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자신의 원초적 자연에 마주설 때, 그 내면의 고요한 푸른 샘물에 생각이 닿을 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최재목

- 영남대 철학과 교수, 시인
- 일본 츠크바대학원 석사 및 박사
- 하버드대, 도쿄대, 베이징대, 라이덴대 등에서 연구
- 한국양명학회 회장 역임
- 현재 한국일본사상학회 회장
- 저서/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노자, 동양철학자 유럽을 거닐다 외 다수
- 200여 편의 논문



500년 전 조선에 피카소가 있었다

글·자료 이성낙



1

조선 분청자기(粉靑瓷器)
'내 배를 찌시오'라는 듯 물고기가 벌떡 누워있다.



분청자기에는 조선 선비의 격 높은 멋이 스며 있다.

“내면에서 묻어나오는 온화함과 그 깊이가 내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와 같다. 나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진예술의 세계적 거장 토마스 루푸(Thomas Ruff, 1958~)가 근래 한국을 방문해 우리 조선 시대 도자기를 감상하면서 한 말이다. 독일 사람인 루푸는 넓고도 깊은 우주의 끝을 탐구하고 싶은 듯 남미 안데스 산맥 정상에 위치한 천문대에서 밤하늘에 펼쳐진 다양한 별들의 군상(群像)을 대형 사진판에 담은 예술가이다.

루푸의 작품을 감상하노라면 끝이 보이지 않아 무섭기까지 한 무한 세계를 접하는 듯싶어 경건한 마음에 사로잡힐 정도다. 마치 무슨 종교화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루푸가 조선시대 백색 달항아리(白瓷大壺)를 보고 위의 느낌을 표현했다면 그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하고 순박하기 그지없는 조선 도자기, 그것도 '장난기'까지 느낄 수 있는 자유분방한 16세기 조선 분청자기(粉靑瓷器)(자료 사진 1, 2)를 보면서 내놓은 감상이기에 놀랍기만 하다. 도자기 내면에서 묻어나는 따뜻함과 깊이를 마치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를 보는 것 같다는 독백이기에 더욱 그렇다. 역시 대가다운 특별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분청자기' 하면 2011년 삼성미술관 리움에 <조선시대 분청자기(粉靑沙器)전>을 뉴욕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했을 때가 떠오른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 예상보다 덩뎡한 반응을 보여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현지 뉴욕은 물론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과는 사뭇 거리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1962년 <한국 고미술 5천 년 전>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을 때 이야기가 생각난다. 당시 국립박물관(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혜곡(兮谷) 최순우(崔淳雨, 1916~1984) 선생을 파견해 현장을 지키도록 했다. 그런데 개막 전날 전시장을 찾아온 파리 유학생들이 조선시대 분청자기를 보고는 “저런 옹기그릇을 무슨 국보라고 전시하느냐? 창피하게”라고 내뱉고는 전시장을 떠났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미술 평론가인 혜곡 선생은 교포들의 이런 막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파리 유명 일간지들이 “한국에는 500년 전에 피카소가 있었다”며 극찬을 했다. 그리고 금불상, 조선 회화를 비롯해 고려자기, 조선백자 등 다양한 전시품이 있었건만 유독 조선 분청자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위 이야기는 파리 전시 다음으로 이어진 서독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에서 혜곡 선생이 필자를 만났을 때 들려준 일화이다. 당시 혜곡 선생은 한국 유학생들이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반성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 문화 예술품에 대한 관심이 고려청자나 조선백자 그리고 청화백자에 쏠려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고려자기는 우



아하다 못해 거리감마저 느끼게 하지만 분청자기는 대담하기도 하고 자유분방한 것이 특징인데, 그것을 당시 우리 유학생들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듯싶다. 그러나 파리지생들은 그 ‘틀을 벗어난 자유로움’에서 현대 추상미를 간파하고 “한국에는 500년 전에 피카소가 있었다”고 극찬을 했던 것이다.



문화 발전과 소비자의 눈높이

그런데 돌아해보면 혜곡 선생은 당시 파리 유학생들이 옹기(甕器)와 자기(瓷器)를 구분 못했던 사실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다.

세계 미술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조선시대 분청자기의 출현이 신기하게만 다가오는 것은 그 오래전 우리 도공(陶工)들의 과감한 실험 정신을 생생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험 정신이 범상치 않기에 세계 미술평론가들의 찬사를 받는 것이겠지만, 이를 당시 도자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주 다른 관점이 생긴다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조선 분청자기는 왕실에 공급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민 계급에서 유통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국 양반 계급이 주요 소비자층이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유분방하다 못해 정교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거칠고, 해학(諧謔)적이면서도 ‘장난기’까지 엿보이는 분청자기를 서슴없이 구매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열린 멋’에 가없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토마스 루프가 “내면에서 묻어나오는 온화함과 그 깊이”라고 표현한 높은 미학의 경지를 우리 선비들이 간파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새로운 문화, 고급문화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자의 일이지만 그것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소비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소비자가 만든다”(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일본편 1 규슈, 174쪽).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의 이 글을 되새기며 우리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격 높은 멋스러움에 절로 존경 어린 미소를 짓게 된다.



2

조선 분청자기에서 과감하고(왼쪽)
자유분방한 도공의 손놀림이 보인다.(오른쪽)



이성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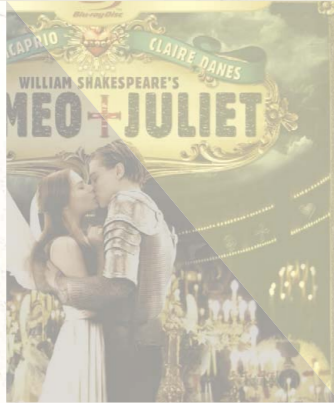
- 가천대 명예총장, 의·약사평론가회 회장
(사)현대미술관회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 원혜의과대 졸업
- 프랑크푸르트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이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William Shakespeare

윌리엄 셰익스피어...

- 셰익스피어 인 클래식 (Shakespeare in Classic)
- 셰익스피어는 현재 진행형
- 셰익스피어 인 발레 (Shakespeare in Ballet)



William Shakespeare

2016년 재조명 받는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기를 맞아 올해 초부터 국내외에서는 그와 관련된 공연과 행사가 일 년 내내 끊이지 않고 잡혀 있다.

지난 5월 25일 열렸던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에선 셰익스피어의 첫 작품집인 [퍼스트 폴리오]가 예상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인 43억원에 낙찰됐다. [퍼스트 폴리오]는 셰익스피어 사후 7년째인 1623년 발간됐으며, 36편의 희곡을 담고 있는 전집이다.

언어의 마술사라 불리는 셰익스피어. 그는 38편의 희곡과 소네트 154편, 장시 2편 등을 남겼다. '햄릿', '맥베스', '오셀로',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 밤의 꿈' '말괄량이 길들이기', '십이야', '헛소동' 등 제목만 들어도 '아 그것!' 하며 읽어보지 않아도 제목만으로도 알아봄직한 작품들이 수두룩하다.

셰익스피어가 작품에 사용한 단어들만 2만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중 신조어가 2000여 개나 된다고 하니 가히 그에게 붙은 언어의 마술사란 별명이 당연할 따름이다. 그는 당시 라틴어로 통용되던 시대에 영어의 아름다운 표현력을 알리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영문학을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실제로도 많은 영문학자들은 영어의 갖가지 관용어가 그의 작품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많은 작가들이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신조어를 활용해 제목을 붙이고 글을 만들어 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입에 딱 달라붙는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헛슬리)' 역시 셰익스피어가 만들어 낸 신조어였다...

여전히 수많은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셰익스피어. 그에게서 영감을 얻은 예술인들은 그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낸 제2의 창작물들을 꾸준히 쏟아내고 있다. 세계 문학사를 비롯해 다양한 예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셰익스피어, 그와 연관된 이야기가 물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만, 문화만개 독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적 감흥을 느끼시길 바란다. (편집자 김은주)



들라크루아-화가의 초상; 햄릿 의상을 입고 있는 들라크루아

셰익스피어 인 클래식 (Shakespeare in Classic)

글 · 자료 권순환

문화만개가 벌써 두 해째를 맞이하는군요.
이번 여름호에는 “셰익스피어 인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유난히도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많이 듣고 있진 않나요? 왜냐하면 올해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서거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1564년에 태어났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끝자락에 태어나서 바로크 시대 초기까지 살아간 영국의 극작가이자, 영문학의 대가입니다.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 밤의 꿈’, ‘햄릿’, ‘리어왕’ 등 자세한 줄거리까지는 생각나지 않더라도, 이름만 들어도 대강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수많은 희극과 비극을 만들어낸 영국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인도를 잃어버리더라도 셰익스피어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에서 셰익스피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있는 말이지요.

그의 수많은 작품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후대의 화가 들라크루아는 햄릿을 읽고 그 비극적이고 염세적인 감정을 이입시켜서 ‘젊은 날의 자화상-햄릿 의상을 입은 들라크루아’를 남기기도 했지요.

또 그의 비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연극을 넘어 영화, 가요, 뮤지컬 등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많은 장르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저 역시 고3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던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당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정말 미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중후한 중년이 되었고, 저 역시 고3 수험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되었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거한지 400년이 되었음에도 끊임 없이 많은 예술장르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 정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런 감상을 이어 셰익스피어가



한여름 밤의 꿈의 한 장면

영향을 끼친 예술 장르 중 클래식 음악사에 남긴 흔적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술사에 워낙 많은 영향을 줬기에 이번에는 유명한 몇 곡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낭만시대를 아우르는 셰익스피어

낭만시대의 작곡가인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멘델스존(F. Mendelssohn)은 10대 시절 이미 셰익스피어에 엄청나게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에 벌써 셰익스피어의 희극인 '한여름 밤의 꿈'을 제목으로 서곡을 작곡했습니다. '얼마나 셰익스피어를 좋아했으면 10대 때 벌써 그의 작품으로 서곡을 작곡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로부터 16년이 더 흐른 1842년 프러시아 제국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멘델스존에게 궁정에서 상연할 연극(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이었겠죠?), 이 연극의 배경음악을 멘델스존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셰익스피어를 좋아했던 멘델스존은 이 의뢰를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어린 시절 그토록 열정을 불태우면서 작곡한 서곡에 이어서 다양한 장면에 사용될 배경음악을 만드는 작업... 당시 멘델스존은 라이프치히와 베를린을 오가며 매우 바쁜 연주들과 음악감독으로서의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한여름 밤의 꿈'을 작곡하게 됩니다. 서곡과 나머지 곡사이에는 16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모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멜로디 역시 잘 살려내어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작곡과정에서 탄생한 곡이 그 유명한 '결혼 행진곡'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결혼 행진곡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셰익스피어라니 참 신기하지요?

*Shakespeare
in Classic*

또한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 너무나도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각종 창작 뮤지컬에 재창조되어 등장함은 물론, 그 이전에 프로코피에프(S. Prokofiev)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곡으로, 차이코프스키에 의해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이 관현악곡으로도 작곡되어 나왔지요. 이번 호에선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P. Tchaikovsky)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음악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 23세인 1862년이니, 지금 생각해봐도 매우 늦은 나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러시아 음악계의 주류세력은 '국민악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들과 친분을 나누고, 특히 그 국민악파 음악가 중 발라키레프(M. A. Balakirev)는 차이코프스키에게 다양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재로 관현악곡을 만들 것을 차이코프스키에게 제안합니다. 작곡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곡이 널리 알려지고 유명해지면서 명성을 쌓게 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유명한 소재는 이미 그 이름만으로도 곡을 널리 알려지게 하는데 장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발라키레프가 제안해 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관현악곡을 작곡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관현악곡이 아닌, 극의 주요 내용들을 음악으로 세세하게 묘사함으로써 '환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작곡하는 내내 무척 심혈을 기울였고, 1869년에 발표를 한 뒤에도 이듬해에 수정을 더 하고, 10년 뒤인 1880년에 최종적인 개정판을 발표합니다. 작곡가가 자신의 곡을 두 번이나 수정한다는 게 그 곡에 얼마나 큰 관심과 열정을 쏟았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페라로 탄생한 셰익스피어

앞서 이야기했던 '한여름 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뿐만이 아니지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는 작곡가 베르디로 하여금 '오텔로'라는 오페라로 재탄생 됩니다.

베르디 역시 셰익스피어의 열렬한 팬이었나 봅니다. 늘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틈나는 대로 읽으면서 "어떻게 이토록 훌륭한 극본을 쓸 수 있을까? 인생은 여차피 한 편의 연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심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정말 대단하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작곡가로 활동하던 초기에도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를 오페라로 작곡한 그였지만, 초기작품과 만년의 작품은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아직 음악계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고 아직

주)번호 오페라

전통적인 이탈리아 오페라는 아리아·2중창·합창·발레와 그들을 잇는 레치타티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성악곡에는 차례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오페라를 '번호 오페라'라고 한다.

청년작곡가였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이미 음악계에서 충분한 실력자로 활동하고 원로급이 되어 작곡한 '오텔로'는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들이 음악과 줄거리가 따로 논다며 붙은 좋지 못한 별명인 '번호 오페라'에서 한층 더 극과 음악과 오케스트라가 유기적으로 연동하며 단순한 음악의 나열이 아닌 '음악극'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주인공인 '오텔로의 심리', '데스데모나의 죽음' 등 극에서 중요한 장면의 전후로는 오케스트라의 비중이 커지면서 현재 영화배경음악과 같이 관객들의 감정을 고조시켜줍니다.

오페라라는 장르가 생겨난 시기가 셰익스피어의 탄생 시기와 일치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못했고, 단순한 연극에 단선율의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앨범자켓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포스터



오텔로의 한 장면

음악을 더한 정도의 미천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사후 1600년대부터 이탈리아에 오페라 전용극장이 생기고 오페라들이 조금씩 발전해나가는데, 초기에는 가수들의 화려한 기교에만 의지하고 극본과 음악이 전혀 유기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62년 글룩이 작곡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오페라부터 극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작곡되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베르디에 와서는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베르디가 죽고 난 1901년 이후에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나, 이미 제작된 뮤지컬 중 셰익스피어와 연관된 뮤지컬.. 최소 수백편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다양한 작품으로 많은 음악가를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영감을 불어넣어준 셰익스피어... 정말 인류 문화의 보물 같은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그의 몇몇 명언들 중, 기억에 남는 몇몇 문구를 소개합니다.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과거를 자랑마라, 옛날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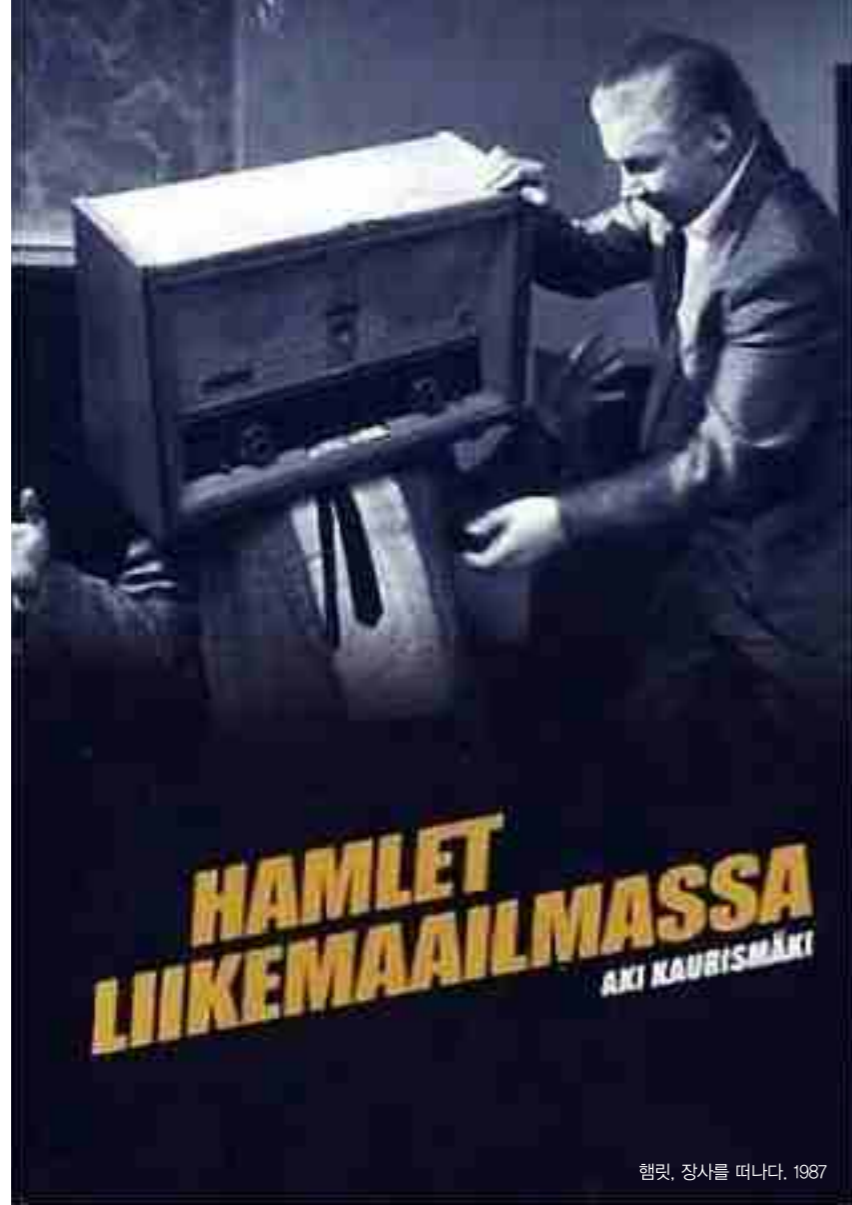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리적 추구를 게을리 하지마라,
그림, 음악, 책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라”

항상 무엇인가 새롭고 열정적인 삶을 살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는 명언입니다. 시간을 내어 셰익스피어의 주옥 같은 작품과, 그에게 영감을 받아 작곡된 클래식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것은 어떨까요? 셰익스피어의 명언에 아주 잘 부합되는 행동이 아닐까요?



권순환

-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40여 장의 클래식 개인앨범 발매, 60여 장의 음반 프로듀서로 활약
- 이지클래식, 미술관에 간 피아니스트, 체르니 콘서트 등 참신한 공연으로 매진행렬 및 호평
-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출간, 국립중앙도서관 우수도서 선정 및 베스트셀러 진입
- 계명대학교, 신한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서울중합예술학교 출강, 네오뮤지카 대표로 재직



햄릿, 장사를 떠나다. 1987



셰익스피어는 현재 진행형

글 · 자료 안재범

불멸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서거 400주년을 맞아 국내 공연예술계에서도 그의 작품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공연들이 연이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립극단은 「헨리 4세-왕자와 폴스타프」(김광보 연출)를 공연하여 왕위를 찬탈한 헨리 4세의 이야기를 무대화하여 권력의 속성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했으며, 극단 백수광부의 창단 20주년 공연인 「햄릿아비」(이성열 연출)에서는 셰익스피어 원작의 「햄릿」을 2016년 한국 사회의 아픔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로 탈바꿈시켰다. 이 외에도 다수의 기성 극단들이 셰익스피어 원작의 공연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 한 해 여러 극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셰익스피어

Hamlet
Likemaailmassa

이와 같은 셰익스피어 공연들을 살펴보면 대개가 20세기 후반에 문화계 전반에 불어 닥친 포스트모던의 영향 아래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현대적으로 또는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단 목화의 「로미오와 줄리엣」(연출 오태석)이나 연희단 거리패의 「햄릿」(연출 이윤택)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제작되어 오랜 기간 국내 공연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다.

오늘날에도 공연계에서는 동시대적인 재해석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셰익스피어를 무대화하는 가장 주요한 제작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공연 관련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광대하게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글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 셰익스피어의 동시대적인 재해석에 대해 다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이후의 현재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의 후기 혹은 포스트-포스트모던 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초-고도소비사회에서 셰익스피어가 현재 공연예술계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며 소비되고 있는지, 그 변화의 특성에 관해 짧게나마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이 그나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고도의 예술성은 차치하더라도 왜 오늘날에도 셰익스피어가 여전히 가치를 지니며 공연예술

계의 주류로서 유통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최근 공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데이터베이스화'의 설명을 통해,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오늘날 고도의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사회 변천의 특성으로 인해 전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료타르(J. F. Lyotard)의 지적처럼 현대사회에서 '커다란 이야기'가 사라지고, 전체 구성원의 결속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중심지향적인 모델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사회적인 양상이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성을 극명히 드러내는 매체가 바로 인터넷이다. 거기에는 중심이 없으며, 모든 웹페이지를 규정하는 감춰진 '커다란 이야기'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비평가 아즈마 히로키(東浩紀)는 근대의 트리형 세계에서는 표층이 심층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포스트-포스트모던의 데이터베이스형 세계에서는 표층은 심층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그 읽어내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 양상을 설명했다.

Shakespeare

제 2창작물로
진화하는 공연문화



헨리 4세-왕자와 폴스타프, 서울시립극단

그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소비패턴 역시 크게 변천했으며, 그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형 세계에서 일어나 가장 큰 문화적인 소비현상은 제 2창작물의 범람을 꼽을 수 있다. 제 2창작물이란 원작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쉬운 예로 DC 코믹스의 「배트맨(Batman)」을 생각해 보자. 만화 「배트맨」은 최초 밥 케인(Bob Kane)에 의해 그려졌지만 이후 수많은 만화가, 소설가, 영화감독에 의해서 새롭게 창작되었다. 거기에는 배트맨의 주요 캐릭터와 고담이라는 배경만 동일할 뿐 각 작품은 전혀 새로운 스토리와 캐릭터로 재생산되어 출간 및 상연되고 있다. 원작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제 2창작물은 초기에는 배트맨이나 제퍼니메이션과 같은 만화나 게임, 그래픽 노블 등의 서브 컬처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연극, 영화 등 하이 컬처의 극예술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우리는 동시대의 셰익스피어 공연에서도 점차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연에서 셰익스피어는 극예술의 원작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제의 원본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선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포드(Tom Stoppard)가 쓴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틴은 죽었다(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가 유명하다. 이 연극에서는 원작 「햄릿」에서 단역으로 등장하는 로젠크란츠와 길덴

스틴이 주인공이다. 그 둘은 극의 초반부에서 동전던지기 놀이를 하는데, 여기서 동전의 앞면만 나오는 상황이 희극적으로 반복된다. 이것은 두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운명을 상징하며, 이 연극이 원작 「햄릿」과는 전혀 다른 주제와 이야기란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국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셰익스피어의 공연들이 속속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13년 마이크로햄릿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차지한 「두 병사 이야기」(석성에 연출) 역시 원작의 캐릭터와 스토리에 의지하곤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웃어라, 햄릿」(안재범 극작, 연출, 연기)을 작년 5월 대학로 노을소극장에서 공연하여 제 6회 현대극페스티벌의 작품상과 연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 연극 역시 「햄릿」과 「오페리아」라는 주인공의 이름과 설정만을 원작에서 차용했을 뿐 「햄릿」의 극심한 두통으로 인해 벌어지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극화되었다.

공연계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셰익스피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핀란드의 거장 아키 카우리스마키(Aki Kaurismaki)는 그의 영화 「햄릿, 장사를 떠나다」(1987)에서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을 「터느냐 마느냐」라는, 자본주의적 생존 양식의 고민으로 바꿔놓았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남자는 사기꾼에게 속고, 강도에게 털리고, 설상가상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삼촌이 탈취하려고 하는 상황에 빠진 가련한 젊

은이로 새로이 설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원작 「햄릿」과 구별되는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독자적인 창작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극단 목화 등의 셰익스피어를 재해석한 연극에서 작가는 분명 셰익스피어였다. 반면 인물, 설정, 배경 등 작품의 데이터베이스만을 차용한 셰익스피어의 제 2창작물에서 작가는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각 작품마다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만을 차용한 제 2 창작물에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말한 오리지날의 아우라(Aura)가 내포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극적인 변화 성향을 고려했을 때 햄릿, 리어, 로미오, 줄리엣 등 셰익스피어의 유명 캐릭터와 어느새 신화로 자리 잡은 그의 희곡 속 이야기들은 앞으로 극예술의 데이터베이스로 더욱 자리매김할 것이며, 그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제 2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리라고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셰익스피어를 한 사람의 실존 작가에서 거대한 문화적 데이터베이스의 총칭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오랜 기간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신비주의적인 소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더욱 흥미롭다. 주지하다시피 셰익스피어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당대의 여러 이야기에 붙인 하나의 필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다.

「왜일까?」 우선 셰익스피어에 관해 전해지는 정보가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그의 막대한 명성을 생각해 보면 셰익스피어에 대한 기록이 그토록 드물다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와도 같은 일이다. 또한 한 작가가 그토록 뛰어난 희곡 38편, 소네트 154편, 장시 2편을 일생에 창작했다는 사실 역시 비현실적이다. 물론 이는 속설에 불과하지만 신비주의적인 소문이 강한 설득력을 지닌 것은 무엇보다 셰익스피어가 실존했다는 명확한 증거 역시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둘러싼 이 같은 소문은 실존 인물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총칭으로 그의 전이를 도운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그의 작품들이 앞으로 다양한 연극과 영화의 원

작으로서 더 나아가 제 2창작물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적극적으로 기능하며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에 따라 이제 그의 작품에 등장한 인물, 배경, 설정 등 각각의 극 요소는 셰익스피어라는 창작자에게 독립하여 하나의 개체로서 그 독자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야말로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주창한 허구와 실제의 구별이 사라진 세계, 시뮬라크르의 세계이지 않은가?」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작가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독자적인 것으로 자생해 가면 셰익스피어를 보러 온 관객들은 이제 극장에서 허구 속 허구를 보는 것이며, 아니러니하게 오히려 허구가 아닌 허구를 보게 되는 것이다.



웃어라 햄릿, 극단 미로



안재범

- 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전공 교수
- 한국연기예술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장
- 극단 미로 대표, MAP연기론 연구소장
- 저서 : 《나와 세계로서의 배우》 외 다수
- 연출 : 《대머리 여가수》, 《혹성의 사랑》 외 다수
- 연기 : 《라이벌》, 《웃어라 햄릿》, 《우리 읍내》 외 다수

21세기 셰익스피어,
어디까지 진화하나



셰익스피어 인 발레 (Shakespeare in Ballet)

글 강정선 | 사진 국립발레단(Korean National Ballet) photo by Baki 제공

28



Shakespeare in Ballet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다.’

수궁이 가는 말이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같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가, 땅이 봄을 단장하는 것도 잠시, 어느덧 질어지는 녹음을 우리는 매일 눈으로 확인하며 살고 있다. 새침한 봄은 눈부신 벚꽃의 향연과 노란 개나리의 물결로 우리에게 이미 ‘봄’을 선사했다면, 날마다 질어가는 초록의 빛깔은 지쳐가는 현대인에게 ‘여유’를 선물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초록이기에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더 대단함으로 느끼게 된다. 그 모습은 지친영혼에 용기를 주고 새로운 도전을 허락한다.

‘새싹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장과 변화의 기반은 무엇일까?’
같은 맥락의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져본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라는 공동체는,
개개인이 모인 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문화의 영향력과
그 힘은 어디까지일까?’

올 봄 우리를 들뜨게 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와 영향력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한 드라마일 뿐인 ‘태후’가 사람들의 말투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며 생각을 전환시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를 떠나 이웃 나라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때 문화의 전파력은 더 과감해지고 있다.

살아 움직이는 문화의 영향력

생각을 이어, 400년 전에 영국의 작은 시골 어폰 에이빈에서 출생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떠올린다. 그는 인생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게 했다. 영국은 물론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일 것이다. 극작가이자 시인이고 배우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엘리자베스 1세가 “인도를 모두 넘겨주는 경우에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못 넘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작품을 통해 그가 끼친 문화적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연극, 음악, 미술, 발레, 등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을 자극하고 새롭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재탄생 되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고전의 白眉라고 불리는 셰익스피어가 전 세계 문화예술계를 들뜨게 하고 있다. 2016년은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4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도 무색하게, 거리로도 수만리 떨어진 영국이란 나라가 주는 공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도 셰익스피어의 열풍을 피해 갈 수가 없다. 지난 겨울부터 발레, 연극, 오페라, 콘서트, 강연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문학과 연극, 영화계에서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재조명되고, 재창조되고 있으며, 음악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영감으로 인해 탄생된 베토벤, 멘델스존, 베르디, 구노의 음악 등이 여러 공연장에서 연달아 연주되며 청중들을 사로잡고 있다.



Shakespeare in Ballet

‘그렇다면 종합예술 장르인 발레는 어떨까?’

발레란 이야기가 있는 행위, 즉 액션이라 할 수 있다.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를 전달하는 예술이다. 사전적 해석을 덧붙이면 발레(ballet)라는 말은 이탈리아어의 발라레(ballare)를 명사화한 발레토(balletto) 또는 발로(ballo)가 프랑스 표기법으로 전해짐으로써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노래하고 연주하며 춤추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인 발레는 음악, 디자인, 마임, 그리고 춤을 동반하고 있다. 춤으로 무용수가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좋고 나쁜 감정만이 아니라 이야기, 즉 스토리를 풀어나갈 때 그 춤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이다. 완벽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희곡은 그런 의미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발레 무대에서 공연된 것으로는 대표적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해 ‘한여름 밤의 꿈’ ‘오텔로’ ‘맥베스’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 많은 작품들이 있다.



셰익스피어로 행복한 발레

동일한 희곡의 같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무대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400년을 거쳐 오면서 많은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발레의 경우 셰익스피어가 읊어낸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작품이 완성되면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손끝과 표정, 안무와 세트, 음악, 의상이 주는 묘미에 따라 감동은 몇 배로 달라진다. 올해는 우리나라 양대 발레단으로 꼽히는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에서도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 셰익스피어 희곡을 원작을 각색한 발레를 각각 무대에 올린다.

32

국립발레단의 ‘말괄량이 길들이기’(6월 23~26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와, 유니버설발레단은 ‘로미오와 줄리엣’(10월 22~29일 예당 오페라극장/11월 11~13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국립발레단이 2015년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 라이선스(license)를 받아 초연한 ‘말괄량이 길들이기’ 발레는 셰익스피어 원작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각색한 코미디 발레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지난해 무대에서 사랑스럽고 우아한 희극 발레로 발레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호평을 받았던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앞으로도 기대되는 발레 작품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20세기 드라마 발레의 거장 케네스 맥밀란의 안무 버전으로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한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1962년 존 크랑코에 의해 3막 12장으로 초연된 작품으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단으로 도약하게 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주인공들의 미묘한 감정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몸짓으로 묘사한 것이 눈에 띄는 작품으로, 발코니 파드되(2인무)가 유명한 발레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유니버설

Shakespeare in Bal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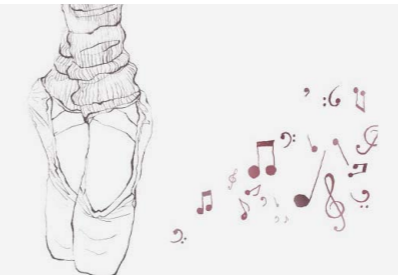
Shakespeare in Ballet

발레단이 새로운 무대에서 어떻게 풀어낼지에 발레 애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유니버설발레단은 1996년에 셰익스피어 원작 ‘한여름 밤의 꿈’을 발레로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한여름 밤의 숲속에서 꿈처럼 얽힌 사랑이야기를 부드러운 파드되와 솔로, 요정들의 아름다운 군무를 연출해 발레 애호가들에게 격찬을 받은 바 있었다.

그 외 [박상철발레단]이 셰익스피어의 ‘오텔로’를 바탕으로 한 발레 ‘Shakespeare in Ballet 오텔로’는 남성 무용수의 안무가 돋보이며 연극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인간의 깊은 내면을 춤으로 표현하는 무대를 올리게 된다. [서울발레시어터]가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 밤의 꿈, 맥베드 등 하이라이트를 모아 구성한 ‘셰익스피어 발레 스페셜 갈라’와 ‘한여름 밤의 꿈’(8월 5~6일 대전예술의전당/11월 11~13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은 발레와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또 [SEO발레단]은 ‘햄릿-구속과 해탈사이’(11월 4~6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란 창작 발레를 무대에 올려 새로운 해석이 가미된 햄릿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2016년은 셰익스피어와 함께 400년이라는 세월을 넘나들며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초 공간적·시간적 예술을 다양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셰익스피어의 재탄생이 시대와 장르를 넘어 어디까지 갈지도...

시대에 따라 문화가 바뀌고 사조가 달라져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고전(클래식)일 것이다. 모든 예술이 아름답고 의미 있듯이 올 한해는 특히 셰익스피어로부터 시작된 행복한 발레가 있어 더욱 고맙고 감사하다. 문학이 스며들고 음악이 흐르며 미술을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발레 무대에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을 실어 본다.



강정선
- 대구무용협회 회장
- 대구예총 수석부회장



뮤지컬 <감브리누스>에 담긴 문학과 예술

러시아 국립 <우 니키토스키흐 보로트> 극장

글 · 사진 박정곤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길지 않은 여름을 간직한 동토의 제국 러시아는 지금 한창 백야 맞이 준비로 곳곳이 분주하다. 6월에서야 겨우 낮설음을 털어 낸 한낮의 피약별은 지나고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고, 자정에 다다를 때까지 사그라짐 없는 태양의 밝은 기운이 도시를 가득 비추니, 이제야 완전한 여름의 모색이 모스크바 전역을 감싸 안은듯하다.

특히, 백야의 풍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콘서트와 연극, 발레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한 해를 살아갈 동력을 충만해주는 여름이 있어 고맙기까지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러시아에서는 빛의 계절인 여름을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나지 못하면 흑독하고도 기나긴 겨울을 버텨낼 내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오의 휴일은 그 어느 것 보다 값진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다.

해마다 9월에 시작 되는 공연 시즌은 6월이 되면 막바지에 접어들며 그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수확하는데, 이 즈음이면 극장 마당을 열어 재치고 야외극으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곳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기계장비를 통해 녹음된 인공적인 음악을 배제한 채 바이올린과 피아노, 드럼과 같은 순수한 어쿠스틱 악기로 배경음악을 선사하며 객석을 사로잡는 연극 작품들이 큰 인기를 얻기도 한다. 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극장을 뽑자면, 단연 러시아 음악극과 뮤지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우 니키토스키흐 보로트> 극장을 들 수 있다.

지독히 러시아적인, 그럼에도 낯설지 않은 만인의 극장



모스크바의 중심인 아르바트 역 언저리에 자리한 <우 니키투스 키흐 보르트> 극장(이하 니키투스키 극장)은 1980년대를 풍미한 러시아 음악극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다. 극장 설립 이후 거의 삼십년을 정극과 더불어 음악극 상연에 매진해 온 극장은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톨스토이 원작 소설을 개작한 음악극 '말의 이야기'를 소비에트 연방 최초로 미국에서 공연한 이력으로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극장 레퍼토리에는 '우리 시대의 노래', '아가씨들에 관한 소설'과 같은 대중적이고 신파적인 음악극에서부터 니콜라이 카람진 '가련한 리자', 안톤 체호프의 '벚나무 밑'에 이르기까지 고전적이면서도 민중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작품들이 즐비해 있다. 특히, 상연 작품 가운데에는 희곡의 원작 그대로를 무대에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문학 텍스트를 예술 감독 마르크 로조프스키의 손을 통해 무대화하여 상연하는 작품들도 상당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작업이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문학 텍스트에 바탕을 둔 상연 작품>이라는 것이 니키투스키 극장의 고유한 상징이 되어버렸다.

특히 올 여름은 알렉산드르 쿠프린의 원작 소설을 개작한 뮤지컬 '감브리누스(Gambrinus)'가 대중들의 눈과 귀를 진한 감동으로 매료하고 있다.

뮤지컬 '감브리누스'는 1988년 니키투스키 극장에서 최초로 상연되었다. 앞서 말한 바, 러시아의 문호 A.쿠프린의 동명 소설에 바탕을 둔 뮤지컬 '감브리누스'는 원작과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얼핏 보면 '감브리누스'는 브로드웨이의 대작 뮤지컬 '카바레'와도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이 두 작품 속에서 사건은 모두 뒷골목에 자리한 <선술집> 내부에서 일어난다. 격변의 세월 속 선술집을 방문하는 각계각층 인물들의 인간사와 성격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두 작품은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서술기법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대해 로조프스키 예술 감독은 "중요한 것은, 두 작품의 모티프 상에서 오는 유사성과 모방성에 관해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의 완전히 다른 역사적 배경



감브리누스의 군무



니키투스키흐 보르트 극장

속의 다양한 방면의 예술가들이 같은 방향에서, 동일한 사유를 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놀랄만한 점이라는 것이다. '카바레'에서는 파시즘의 발발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유된다. '감브리누스'에서는 러일전쟁과 유태인 학살, 1905년 혁명에 관한 단상들을 속속들이 드러내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다.

오랜 시간 극장의 간판작품으로 성황리에 공연을 해왔던 '감브리누스'는 2천 년대 초반부터 상연을 중단하고 한 동안 개작과정을 거쳐 오다, 중심인물들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강화한 후인 2013년부터 다시 무대에 오르고 있다. 그만큼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기에 오늘날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걸출한 보컬도, 화려한 무대 장치도 없지만 고전 문학에 기반을 둔 러시아 전통 뮤지컬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마력을 소유하고 있다. 바로 이 러시아 뮤지컬이 가지는 커다란 매력으로 '감브리누스'는 세계의 관객들과 대면하고 있다.

러시안 카바레, '감브리누스'



'감브리누스'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주된 인물은 선술집의 모차르트이자 유태인 음악가인 "사슈카"이다. 바로 이 주인공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에 당대 흑해의 남부도시 오데사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이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녹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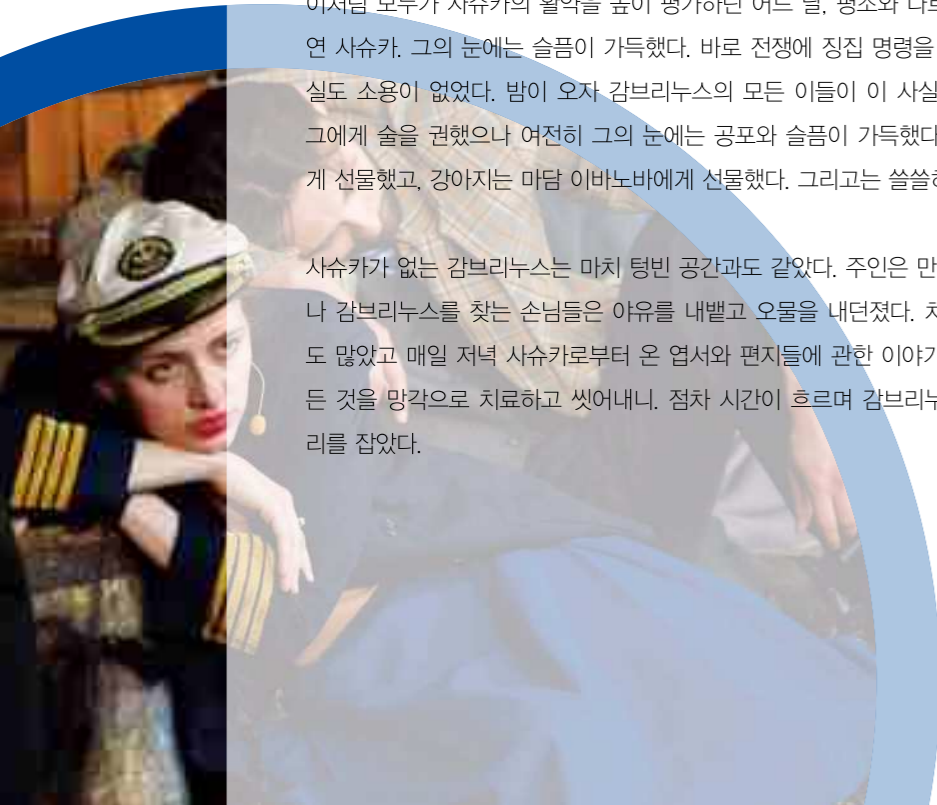
뮤지컬 '감브리누스'의 중심 사건은 동명의 선술집 감브리누스에서 발생한다. 선술집의 이름은 감브리누스 황제의 명칭에서 유래하였는데, 지하에 위치한 이곳은 언제나 벽이 축축하게 젖어있고 바닥에는 두텁게 톱밥이 깔려 있었다. 테이블을 대신한 술통은 언제나 나뒹굴어 다녔으며 입구의 오른쪽에는 조그만 연단이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매일 밤, 손님들을 위해 늙은 악사인 사슈카가 연주를 한다. 그는 늙고 초라한 악사이다. 그의 외모를 본다면 흡사 원숭이와 같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사슈카에게는 "벨로츠키"라는 작은 개가 한 마리가 있다. 그 개는 언제나 사슈카와 함께 하였다. 그 외에 감브리누스를 지키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마담 "이바노바"였다. 그녀는 마치 '갑판 위의 선장'과도 같이 하녀들을 가차 없이 부리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다.

도시의 향구는 언제나 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영국, 일본,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선원들이 오고 갔다. 여러 나라에서 온 선원들은 감브리누스의 끊임없는 단골손님들이었고 사슈카의 팬들이었다. 선원들은 자신의 지방과 고향 나라의 멜로디를 사슈카에게 주문했고 그때마다 사슈카는 정성껏 그들이 원하는 곡을 연주해 주었다. 이처럼 매일 저녁 마다 그의 주머니는 사례로 받은 은화로 가득했고, 이곳저곳 테이블에서 초대를 받아 흔들리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다음날이 되면 또다시 그는 감브리누스에서 연주를 하고 모든 것을 반복했다. 사슈카는 자신의 바이올린 선율 아래 감브리누스를 찾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외로움과 회색빛의 일상, 고된 노동, 슬픔을 잊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처럼 모두가 사슈카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일찍 감브리누스의 문을 연 사슈카.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바로 전쟁에 징집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가 유태인이라는 사실도 소용이 없었다. 밤이 오자 감브리누스의 모든 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취객들이 동정하여 그에게 술을 권했으나 여전히 그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다. 사슈카는 바이올린을 한 노동자에게 선물했고, 강아지는 마담 이바노바에게 선물했다. 그리고는 쓸쓸히 연단에서 내려갔다.

사슈카가 없는 감브리누스는 마치 텅빈 공간과도 같았다. 주인은 만돌린 연주자를 초청하기도 해보았으나 감브리누스를 찾는 손님들은 아유를 내뱉고 오물을 내던졌다. 처음에는 사슈카의 안부를 묻는 이들도 많았고 매일 저녁 사슈카로부터 온 엽서와 편지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시간이란 모든 것을 망각으로 치료하고 씻어내니, 점차 시간이 흐르며 감브리누스에는 새로운 이들이 등장했고 자리를 잡았다.

감브리누스의 여인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사슈카에 대해서는 모두가 잊었다. 마담 이바노바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슈카가 돌아왔다. 마침 그가 돌아온 날에 손님들은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감브리누스를 가득 매우고 있었다. 기쁨에 찬 손님들은 사슈카에게 다시 바이올린을 가져다 주었고 벨로치카도 다시 그의 옆을 지키게 되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그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담 이바노바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곧 혼란과 격동의 시간이 도래하였다. 거리를 따라 분주히 사람들이 오갔고 이따금 민족탄압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유태인에 대한 탄압이었다. 다행히 사슈카는 누구도 건들이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슬픔이 비껴가지는 않았으니, 탄압자들은 그의 개를 눈앞에서 죽여 버렸다.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왔던 반려자였기에 개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다.

도시에는 지독한 정적이 가득했다. 도시를 따라 형사들이 오갔다. 감브리누스 또한 종종 엄습하여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다. 형사 가운데 한명은 "군도식"라 불리는 세례를 받은 유태인이었다.



사슈카의 연주



노동자들의 노래

코스차의 노래



그는 사슈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느 하루, 결국 그는 사슈카에게 덤벼들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잠시 뒤 그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사슈카는 사라졌고 이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삼 개월이 흐른 후, 예기치 않은 밤에 사슈카가 돌아왔다.

다. 그는 턱수염을 수북이 기른 채 강말라 있었다. 그러나 가장 공포스런 일은 그의 왼손이 팔꿈치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부러져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손은 멍개져버렸고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었다. 관객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다. 삶의 고독과 슬픔을 치유할 촉매제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건강한 다른 손으로 바이올린의 활을 풀어 바이올린의 목에 활을 엮어 소리를 내고 만다. 차츰차츰 소리는 커지다 이내 감브리누스에는 모든 이에게 오랫동안 익숙했던 너무나도 정겨운 그 멜로디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되었다.



정속하지 않는 예술적 시간 속에 소통을 염원하며

예술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과 많은 면에서 동일하면서도 사뭇 다르다. 감브리누스는 공간에서도 시간은 우리네의 시간과 무언가 다르게 흘러가는 듯하다. 가령, 감브리누스는 항구의 한 칸을 지키다 어느 순간 전장으로 넘어가기도, 또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자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감브리누스는 한순간에 시공간의 벽을 넘나들며, 동일한 시공간 속에 인류가 삶을 영위하고 있던 구시대의 예술적 사고가 가지는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려 버린다. 다시 말해 정속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인물들이 살아가고 있음이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말이다.

러시아의 비평가 M.바흐친의 말에 따르면, 예술작품에서 러시아 지방 시골의 시간과 공간은 이질적인 개념이라 외부세계와 다른 흐름을 가진다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나 외삼촌', '벚나무 밭'과 같은 안톤 체호프의 시공간이라 하겠다. 체호프의 시간과 공간은 보다 단절적이고 소통이 되지 않는 고립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쿠프린의 시공간은 정반대이다. 단절과 소통이 동전의 전면과 배면과 같이 양립한다면 쿠프린의 그것은 지극히 소통을 향한다. '감브리누스'는 러시아 남부의 자그만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역

사적 거대담론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으나, 말 그대로 <항구>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인해 언제나 소통이 연속되는 <흐름의 공간>이 창출된다.

또한 감브리누스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데에는 바로 예술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흐르는 변화의 공간으로서 그와 함께 충돌과 격변을 경험하며, 보다 발전된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바로 예술이 자리한 것이다.

<감브리누스>를 채우는 사람들의 주류는 마치 M.고리키가 <밀바닥>이라 표현한 사회적 하위층의 사람들과 흡사하다. 이들은 감브리누스라는 선술집을 그들의 유토피아적인 공간으로 승화하며 일상에서 받은 고통과 비애를 예술로 소통하며 치유 받는다. 또한 급박하게 변화하는 시공간에 더러는 순응하기도 하며, 더러는 대적하기도 한다.

엄연히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어느 특정 대상이 아닌, 사회 밑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민중들이자 그들이 지켜 온 예술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의 예술이 작품의 가장 큰 주인공이라 하겠다. 이처럼 예술이 있기에 그들은 정체되지 않은 시공간에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기에, 원작 소설에 기록된 쿠프린의 명문(名文)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상처를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예술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 낸다.”

박정곤

- 고리키 문학대학교 한러문화연구원 원장
- 고리키 문학대학교 초빙 연구교수
- 러시아 지역 전문가/극지방 문화 연구자
- EBS <세계 테마기행> 러시아 큐레이터

감브리누스의 축제





말해진 적 없는, 말할 수 없는

양향옥 최복호의 콜라보 ‘당신이 꽃입니다’

글 윤규홍

어디까지나 이 광경은 내 추측이다.

작가는 여러 점의 캔버스를 펼쳐놓고 동시에 그것을 채워 나간다. 그녀는 자기 그림을 응시하며 깊은 침묵에 빠졌다가 이윽고 커다란 유리창 밖에 있는 산과 하늘, 그리고 강의 모습도 바라본다. 한편으로 여기서 이어져 나온 詩語도 노트에 옮겨진다. 화가 양향옥이 품은 이러한 작업은 결코 그 끝을 속단할 수 없는, 그러나 어느 지점에 이르러 하나의 틀을 갖추는 회화 연작으로 다가선다. 아틀리에 창 너머에 펼쳐진 풍광은 그것이 들녘이든 강물이든 인위적인 손길이 닿았으므로 도시의 일부다. 이 세계는 무수한 질서의 패턴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 배열은 어느 순간 화가의 그림이라는 또 다른 인위적인 과정으로 바뀐다. 얇은 한지에 분채 물감이 화사하게 머금은 색들은 이 종이의 포개어짐과 스며듦을 통해 형체를 가늠케 하는 대상이 된다. 거기서 느끼게 드러나는 시각적인 효과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중간지대에서 열린 빛으로 세계를 감싼다.

정념어린 순수로 나타낸 무의식의 세계

느림과 열음, 시간간의 이와 같은 조응은 양향옥이 그림을 그리는데 꼭 필요한 레이어 기법에 준하여 이제 화단에서 그 독자성을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늘거리는 한지의 겹침은 그것이 예컨대 꽃잎이든 구름이든 아니면 무의식이든 캔버스의 프레임 속에서 작가와 세상을 잇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사실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작업이 일기 혹은 회고록과 비슷한 형식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 텍스트는 글자로 된 보충 설명이 없으면, 아니, 있더라도 우리가 맥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암시로 가득하다. 그녀가 그린 평면 작업은 반투명한 동시에 여백이 거의 없는 색을 띠면서, 작가 자신이 관찰한 자연의 질서로부터 따온 하나의 미메시스(mimesis)다. 미묘하고 섬세한 도상은 원래 지니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화가가 완성해가는 미술이 일종의 감성 기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은 결코 모호한 관념에만 호소하지는 않는다. 현실에 대한 직언이나 풍자가 없이 정념어린 순수가 작품을 관통하는 힘이며, 이번 신작은 그 힘을 바탕으로 관객과 작품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다. 내 생각에, 그녀의 그림은 사물을 구성하는 면과 색을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형태를 떠받드는 빛을 점선면색과 같은 요소로부터 간격을 떨어뜨려 놓은 결과다. 어떨 때에 이는 공허해 보일 수도 있다. 단색화나 모노크롬, 아니면 수묵화를 둘러싼 자기 평가 혹은 비평 담론이 '그래서, 어떠하라고? 그림은 그림이고, 철학은 철학인데.'라는 반발이 양향옥의 작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평론가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내가 이런 허무주의적 반발에 대처하는 논리를 작가에게 제공하면 좋다. 하지만 그게 뭔지 나로서도 선뜻 찾기 힘든데다, 자칫 현학적인 변명만으로 가능할 우려도 있다. 단지 내가 관찰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작가는 본인의 작



업에 드리운 관념적인 측면을 기법을 다듬어 나가는 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시적인 영감을 도록에 그대로 활자화하면서 본인의 세계관을 현대 미술에 안착시키려 한다.

작가는 열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연작 회화를 통하여 자신의 작가적 생애사를 담았다. 밝고 화사한 빛으로 시작된 작품은 중간에 탈색된 차분함을 거치고, 마지막에 가서는 짙은 파란 색으로 마무리된다. 검정에 다가간 이 파란 색은 그녀가 스스로 허용하는 최대치의 우울이다. 한국적인 전통 채색 기법으로부터 시작된 양향옥의 회화는 단색의 수묵을 배제한 채 색의 상징을 뚜렷이 배열한다. 블루는 작가에게 있어서 단순한 파국이나 절대 소외가 아니라 일종의 명상에 접어든 상태로 제시된다. 상징이 이미 그 시대에 특정한 의미로 공유된다면 그것을 예술작품에 끌어들이는 때 상투성을 면하기 힘들어진다. 양향옥은 여기에 얼마간의 변이를 더하여 닫힌 세계를 열고자 애쓴다. 작가가 택한 색채화 방법에 관한 내 해석은 그렇다.



‘당신이
꽃입니다’



연극의 독백처럼 남겨진 의미들

다음으로, 문학적 친화력에 대한 생각. 작가는 자신이 오롯이 받아들인 경험을 문학적 서술에 빚대어 발설하려 한다. 그렇다고 이런 특징이 동시대 미술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 체계가 덜 분화된 초기 근대 시기의 낭만적 태도를 답습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겉으로 볼 때, 작가는 한 폭의 그림이 한 가지 상태를 분명하게 기술(description)하지 못하는 상황을 꺼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작가는 어느 한 지점으로 압축한 작품의 의미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추상성에 가까운 형태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틈을 메우기 위해서 시적인 자기 기술을 행한다. 그렇더라도 이 모든 것은 미술이다. 예컨대 최근의 경향 가운데 무대에서 벌어지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심지어 그것을 미술가 본인이 아닌 무용수의 동작을 빌어서 표현하더라도 미학자나 예술 사회학자들은 이를 ‘무용과 미술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미술이라고 분류한다. 영화나 패션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모두 그렇다. 그걸 우리는 아카이브 작업,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콜라보레이션 등 갖가지 개념으로 정의 내리지만, 그 테두리



에 담을 수 없는 타 장르의 온전함조차 미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준거성이라고 부르는데 나의 판단으로, 이제 양향옥은 다른 장르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족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그 조형성이 가진 심미적인 탁월함 때문에 여러 매체 실험에 대한 제안을 억지로 뿌리치라는 뜻은 아니다.

이 모든 상황적 판단으로부터 한 걸음 뒤에서서 전체를 보자. 작가가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자신이 작업을 통해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작가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이 의미나 가치는 선언적인 강령이나 강박적인 이벤트로 포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소곳이, 유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그림은 우리에게 말을 건다. 그 말은 마치 속을 덜 채운 언어와 비슷하다. 마치 연극의 독백처럼 우리가 그 텍스트로부터 단 하나의 의미를 고정시키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말 건넌에 대하여 대화할 의무 역시 우리에게 없다. 붕붕 떠다니듯 무게감을 없앤 한지의 색 겹들은 늦봄에 이른 꽃잎처럼 슬프다. 이 꽃잎들은 보는 이들을 자신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작가가 터놓은 말의 길을 걷든, 아니면 일상어의 세속적인 길을 걷든 간에 결코 말로 전할 수 없는 빛의 흔적 속으로 모두를 이끌어 간다.



윤규홍
 - 미술평론가 - 예술사회학(경북대)
 - 갤러리 분도 아트디렉터
 - 가창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
 - 대구문화재단 차세대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담당교수
 - 월간 대구문화 편집위원
 - 예술발전소 6개대 연합전 전시감독



고혹적인 소프라노가 기타 선율을 만났을 때

글 김은주(문화정책실장) | 사진 달서문화재단 제공

concert dramatic



여덟 번째 스마일 토크콘서트의 주인공인 소프라노 신델라와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드라마틱 콘서트가 지난 6월 1일(수) 오후 7시 30분 와룡홀에서 열렸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자 무대에 나온 함춘호는 '시인과 촌장' 시절 멤버였던 하덕규와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들의 명곡인 '가시나무새'를 기타 연주로 들려줬다. 관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함춘호 기타리스트의 손짓과 몸짓에 집중했다.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와 함께 기타 동호회 회원들이 보면대를 옮겨달라고 했다. 기타리스트의 손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함춘호는 "대구분들 열정이 대단하시네요"라며 흔쾌히 보면대를 옆으로 치웠다.

두 번째 곡부터는 신델라와 함춘호의 듀오로 이어졌다. 아름다운 신델라의 등장에 내심 놀란 관객들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이어지는 두 연주자의 드라마틱 콘서트에 점점 빠져들었고 관객과 연주자 모두가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갔다. 'Memory', 'Moon river', 'Those were the days' 등 3곡을 신델라의 노래와 함춘호의 연주로 들려주었다. 관객과 소통하듯 노래와 연주에 이어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음악이야기를 보고 듣노라면 두 사람의 음악적 재미가 얼마나 절묘했는지... 관객들의 환호가 계속 이어졌다.

소프라노 신델라의 고혹적인 목소리는 몸이 얼마나 훌륭한 악기인지 새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 이었고, 기타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핑거링은 그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할 뿐이었다.

'The map of the world'(팻 맷스니 곡)을 함춘호의 독주로 들려줄 땐 관객들의 숨소리마저 작아졌다. 절대 지나치지 않는 함춘호의 기타연주를 보고 듣노라면, 세월의 무상함마저도 잊게 된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처음 기타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10대~20대로 타임머신을 탄 듯 그들만의 청년시절로 돌아 가버린 듯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기타리스트, 그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함춘호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바라보는 기타동호회 회원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유독 반짝거렸다.

이어서 두 연주자는 '낭만에 대하여', 'O Mio Babbino Caro', '보고픈 마음'(원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신델라 작시), '볼라레', '베사메 무초' 등 관객들이 사랑하는 드라마틱한 곡들로 채워나갔으며, 점점 더 멋진 연주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했다. 공연장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청중들은 와룡홀을 가득 채운 음악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두 연주자의 환상적인 음악적 조화에 대해 박기근 씨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공연 내내 설레었다"며 "연주는 끝났지만 오랫동안 감흥이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연이 끝나도 관객들은 떠날 줄을 몰랐다. 함춘호와 신델라를 만나기 위해...

역시 공연도 소통이었다. 연주자와 관객의 음악적 소통이야말로 그다음 공연을 기대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성민제 & 조운성 JAZZ IN CLASSIC 클래식의 옷을 입은 재즈...

글 · 사진 이성욱(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



오케스트라에서 늘 조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윽한 울림으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짝 채워주는 더블베이스 혹은 콘트라베이스, 조연의 악기를 주연으로 내세워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더블 베이스리스트 성민제가 대한민국 대표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과 함께 대구 첫 공연을 펼쳤다. 지난 3월 18일 오후 7시 30분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열린 성민제와 조운성의 '재즈 인 클래식'은 매혹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청중에게 다가왔다. '클래식의 옷을 입은 재즈'를 컨셉으로 듀오 공연의 화려한 기교와 음악적 깊이를 들려준 80분 동안 연주자들은 그들만의 필살기로 관객들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았다.

영혼의 파트너가 들려주는 재즈 인 클래식

클래식계의 패셔니스타 성민제는 에길슨의 '더블베이스 소품'을 독주로 차분하게 1부 공연을 시작했다.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조운성과의 듀오로 선보였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곡이지만 성민제의 날렵한 운지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더해진 조운성의 리드미컬하면서도 서정적인 터치로 전통 클래식에 재즈 리듬을 입힌 색다른 연주는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이후 진행된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과 '리베르탱고'는 화려한 테크닉을 이용한 라틴 탱고의 아름다운 선율과 정열적인 리듬으로 두 연주자의 장점을 고스란히 보여줘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2부 공연에서는 조운성의 발매 예정인 새 앨범 수록곡, 'Lining', '하늘을 나는 성', 'G-Day' 피아노 독주 3곡을 최초로 대구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명쾌하고 안정감 있는 기교로 정평이 나있는 그의 연주는 다양한 공연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과 풍부한 감정까지 더해져 아름다운 선율 안에서 탄탄함과 유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듀오 연주는 잘 알려진 영화음악과 대중음악으로 채워나갔다. '사브리나'의 메인 테마를 시작으로 감성적인 멜로디로 유명한 영화 '디어헌터'의 OST '카바티나'(존 윌리엄스의 기타 곡)를 더블베이스 사운드로 그루브 감을 더해 원곡이 지니고 있던 서정적인 느낌을 배가하였다. 공식 프로그램의 끝자락을 장식한 'Smoke get in your eyes', 'Fredo'에선 성민제의 현란한 베이스 운지와 조운성의

다이내믹한 속주 등 기교의 절정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기립 박수를 이끌어 냈다. 끊이지 않는 커튼콜에 대한 응답으로 재즈 버전으로 편곡한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앙코르로 'Jazz in Classic(재즈 인 클래식)'은 마무리 되었다.

'더블베이스 독주 레퍼토리 확장', '악기가 지닌 가능성에 대한 실험' 지난 10년 간 성민제의 머리를 지배한 두 개의 큰 화두는 조운성이라는 재즈피아니스트를 만나며 타 장르 음악을 포용하며 다양한 시도를 낳았다. 哮喘同時(줄탁동시)란 말이 있듯이 장르를 넘어 서로의 깨우침을 통한 배려와 협업은 두 연주자의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청중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으며,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블베이스 독주 레퍼토리 확장', '악기가 지닌 가능성에 대한 실험' 지난 10년 간 성민제의 머리를 지배한 두 개의 큰 화두는 조운성이라는 재즈피아니스트를 만나며 타 장르 음악을 포용하며 다양한 시도를 낳았다. 哮喘同時(줄탁동시)란 말이 있듯이 장르를 넘어 서로의 깨우침을 통한 배려와 협업은 두 연주자의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청중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으며,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블 베이스리스트 성민제는

10대에 요한 마티아스 스페르거 국제콩쿠르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쿠세비츠키 콩쿠르를 석권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2009년에는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성공적 데뷔 앨범을 선보였다. 이후 더블베이스의 한계에 도전한 2집 '언리미티드'를 출시, 정재일, 지용 등과 슈베르트를 자유롭게 해석한 음악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천재 재즈피아니스트 조운성은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로 재즈계의 전설 허비 행콕의 눈에 띄어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7명만 뽑는다는 '멜로니어스 몽크 재즈 인스티튜트' 멤버로 발탁되기도 했다. 성민제는 조운성을 영혼의 파트너로 손꼽는다.

옆집 오빠 같은 피아니스트가 들려준 아빠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글 김은주(문화정책실장) | 사진 달서문화재단 제공

“오늘 아침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고 와서 ‘아빠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를 들려주려니까 새삼 감격스럽네요. 콘서트는 늘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들려줄까?’, ‘어떤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까?’ 고민하는 아빠가 된 순간 같기도 합니다”(웃음)

오늘 연주의 컨셉에 대해 운을 띄우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로 공연을 시작했다. “학교 쉬는 시간 알람소리로, 쓰레기 청소차 후진 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관객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독주를 이어나갔다.

진솔한 성격답게, 권순훤 교수(서울예술종합대학)는 연주를 할 때나 작품을 설명할 때도 진지함과 즐거움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어서 세 명의 연주자들이 관객에게 선물처럼 들려준 연주는 바흐의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수첩’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 쇼팽의 ‘고양이 왈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헝가리 무



싱그러운 봄바람을 따라 2016년 ‘스마일 토크콘서트’의 첫 무대가 지난 3월2일 저녁 7시 30분, 와룡홀에서 열리면서, 겨우내 기다렸던 관객들의 마음 문도 함께 열었다.

예술 융합의 아이콘, 잘생긴 옆집 오빠 같은 권순훤 피아니스트가 올 봄 [아빠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 곁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미술관 콘서트’로 관객들에게 눈과 귀에 쏙 들어오는 연주와 이야기를 선사했던 권순훤 피아니스트의 인기는 여전했다. 일곱 번째 스마일 토크콘서트 역시 권순훤 피아니스트가 꼼꼼히 준비한 영상 자료들과 함께 맞춘 듯한 연주와 이야기로 90분 동안 무대와 객석을 꽉 채웠다. 지난해와 같이 피아노 권순훤, 바이올린 윤지영, 첼로 강희윤이 연주를 맡아 더욱 깊어진 울림과 화음을 들려주었다.



곡 1번’ 생상의 ‘백조’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슬라브무곡’ 슈베르트의 ‘안단테’ 몬티의 ‘차르다시’ 구노의 ‘아베마리아’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가의 잔물결’ 앤더슨의 ‘워털루 전투’ 등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거나, 한번쯤 도전했던 연주곡이거나, 교과서에서 배웠던 음악들로 채워진 무대였다.

특히 구노의 아베마리아를 연주하기 전, 조선의 순교자 엘베르 주교의 친구였던 구노가 아베마리아를 작곡한 배경을 역사 속 이야기와 짚어가며 설명을 곁들이자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상했다.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에 작곡의 배경과 예술가들이 고민해온 이야기로 채워진 [아빠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는 자상한 아빠가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막힘없이 진행됐다. 마치는 시간이 되어도 관객들은 못내 아쉬운 듯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에 자주 참석한다는 관객이 물었다.

“권순훤 피아니스트는 언제 또 연주하러 오나요?”

‘처음 만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는
어떤 모습일까?’



[아트힐링특강]을 위해 서울에서 오는 강사를 기다리며 내심 궁금했다. 봄학기 두 번째 [아트힐링특강](3월 24일)을 맡은 김태진 강사는 우수한 미소를 가진 참 지적인 인상의 소유자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적인 여행’이라는 테마로 인문학 베스트셀러를 달리는 <아트인문학여행>의 저자 김태진의 강의는 겸손하고 소박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김태진 강사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소개하면서 강의를 이어갔다.

인문학으로 만나는 파리,
그리고 인상주의
예술아카데미 [아트힐링특강] 중

글 · 사진 류정선(예술아카데미 담당)

“오래 전부터 가족과 함께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족과 함께 꿈을 나누고자 무작정 떠난 유럽여행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여행과 그림은 이야기거리의 원천이 되었으며, 그렇게 시작된 다양한 이야기는 강의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보다 많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의해 『아트인문학여행』이라는 책까지 출판하게 되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김태진 강사는 “버킷리스트에 적어 놓은 소망들이 하나씩 실현되면서, 자신의 일과 생활 속에서 ‘여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진 강사와 함께한 인문학 강의는 단순한 명화감상을 넘어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는? 여기는?’을 되물게 되는 통찰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1부 주제는 ‘로마가 되고 싶었던 파리’.

절대왕정시대 ‘태양왕’ 루이 14세 삶과 그가 파리의 예술을 어떻게 융성하게 키워나갔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절대 왕정 이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1세의 시대를 지나 왕정복고에 이르는 긴 시간은 프랑스 역사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비극을 간직한 시대이다. 강사는 루이 14세 이야기와 ‘다비드’와 같은 위대한 프랑스 예술가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관한 숨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 주었다.

흔히 유럽여행을 하면 에펠탑과 개선문, 베르사유 궁전 등 대표 건축물을 보고 일명 ‘인증샷’을 남기기에 급급하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여행이 단순한 관광에 그치는 것 보다는 그 속에 녹아있는 시대적 배경과 주인공들의 삶을 이해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여행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베르사유 궁전을 간다면 화려한 모습에만 취해있을 것이 아니라 강사가 알려준 것처럼, 평생을 한편의 연극처럼 화려하게 살았지만 너무나 외로웠던 루이 14세의 삶을 생각해보며 정원을 거닐어 보고 싶었다.

2부는 ‘파리, 세계예술의 중심이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카메라가 발명되고 기차가 달리는 등 시대가 발전하는 가운데 마네를 중심으로 고흐와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신의 인생과 예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함께 작업에 몰두했던 시대를 되짚어 보았다. 인상주의하면 먼저 파리에 있는 카페들을 떠올리게 된다. 강의 내내 골목 카페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큰소리로 토론하며 그림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 속에서 예술을 대하는 그들의 진지한 마음을 충분히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카유보트의 ‘비오는 날의 거리풍경’ 그림을 보며 수백 년 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작업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갔던 인상주의 화가들을 마주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두 시간의 강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지금까지 수많은 강좌를 개설해 보았지만, 김태진의 [인문학으로 만나는 파리]는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아름다운 인상주의 그림들을 감상하며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 그 시대를 표현한 회화 속의 질문과 각자의 대답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멋진 시간이었다.

예술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예술과 마주한다. [아트힐링특강] 등 인문학강의에서, 또 실기를 통해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예술에서, 아름다움의 벽간 감동을 느끼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藝術人이 아닐까 싶다.

유럽미술기행

인문학, 미술을 만나다

스페인 미술 속 휴머니즘을 찾아서

글·사진 김영동

《비엔나 미술사미술관》에서 만난 벨라스케스

비엔나의 미술사미술관
(Kunsthistorisches Museum

Wien)은 파리의 루브르와 마드리드의 프라도와 함께 유럽 최대의 미술관으로 꼽힌다. 이들은 특히 유럽회화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바로크 시대 명작들의 보고라고 부를 만큼 다른 미술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과 화려한 내용의 컬렉션들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비엔나와 마드리드 이 두 곳의 미술관은 유럽 전역에 걸쳐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 스페인 왕실의 소장품들로 채워져 있어서 플랑드르와 스페인 및 이탈리아 미술의 걸작들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컬렉션을 위해 지어진 19세기 건축 양식의 비엔나 미술사미술관 전경. 2016년 1월 야간에 촬영



회화 갤러리가 있는
위층으로 오르는 계단

헝가리 작가 Mihaly Munkacsy(1844-1900)가 그린 중앙 홀의 천정화,
'르네상스 예찬'(1888년 완성, 프레스코 화)



① The Emperor Charles V at Muhlberg, 1548, Oil on canvas, 335x283cm
② Self-portrait, Ca. 1562, Oil on canvas, 86x65cm
③ 프라도미술관의 티치아노 '자화상'(1562)

일찍이 합스부르크 가문과 막시밀리안 황제의 친손자라는 배경을 가지고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오른 카를 5세(1500-58), 그는 스페인을 다스린 필리프 1세이기도 했다.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1490-1576)를 독일로 불러 여러 점의 초상화를 맡겼는데 그의 유명한 기마상, 'The Emperor Charles V at Muhlberg'(1548)은 뮐베르크 전투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현재 프라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작품과 함께 노년의 티치아노 자화상 한 점도 같이 볼 수 있는데 티치아노의 가슴에 걸린 황금 목걸이는 카를 5세를 만족시킨 기념비적인 초상화의 대가로 수여받은 것이라 한다. 필리프 2세(1527-98) 또한 티치아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다. 예술가에 많은 지원을 해오던 스페인 왕실에서 벨라스케스(1599-1660)를 궁정화가로 맞이한 것은 필리프 4세(1605-65)에 이르러서다.



벨라스케스는 처음 그린 필리프 4세의 초상화에 서 갓 즉위한 젊은 왕을 장식이 없는 검은 빛깔의 옷에 한 손에는 서류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사벨 위에 두고 서 있는 자세로 그렸다. 개혁과 공정한 업무를 집행하는 군주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는 필리프 4세와 그의 왕비 이사벨과 또 그녀의 사후 맞이한 두 번째 왕비 마리아나는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수많은 초상화들을 남겼다. 그중 공주들의 초상화 일부는 약혼이나 혹은 배필을 찾아보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비엔나나 브뤼셀, 파리 등지의 왕가로 보내졌었다. 벨라스케스는 필리프 4세의 재위기간 내내 궁정 일에 헌신하다가 마리 테레사 공주(마가리타 공주의 이복 언니)의 결혼식(1661)을 1년 앞두고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Felipe IV, 1623, 198x101.5cm, Prado

비엔나의 미술사미술관에서 벨라스케스가 그린 필리프 4세의 가족 초상화들이 나란히 전시된 방에 들어서게 되면 대개 관객들의 반응은 뜻밖의 조우에 놀라듯 설렌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어린 마가리타 공주(1651-73)의 초상화 3점이 인기가 높는데 거기에 적용된 벨라스케스의 빼어난 솜씨 때문이기도 하다. 마가리타 공주의 어린 모습은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에 있는 벨라스케스의 대표작 ‘시녀들(라스 메니나스)’에 등장하여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스페인 마드리드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이곳에 3점의 그림이 소장된 사실 자체도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 방에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모두 10여 점의 초상화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먼저 필리프 4세 왕과 그의 첫 번째 부인 이사벨 왕비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난 어린 카를로스 왕자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 테레사 공주 순으로 걸려 있다. 때로는 마리아나(오스트리아) 왕비의 초상화가 마리아 테레사 공주의 초상화와 자리를 옮겨 전시되기도 하는데 초상화 속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 나면 화려한 의상의 이면에 감춰진 당시 스페인 왕가의 역사와 인물의 표정에서 인간적인 비애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오랜 근친결혼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왕실 후손들 거의 모두가 단명하거나 질병에 약한 허약한 체질로 일찍 사망하게 돼 이를 지켜 봐야 했던 화가의 시선에도 안타까운 연민의 정이 담겼지 않나 싶다.



◀ 맞은편 쪽 벽에 2-3년 간격으로 그려진 마가리타 테레사(Margarita Teresa 1651-73) 공주의 초상화 3점. 비엔나 미술사미술관.

벨라스케스가 그린 필리프 4세 가족 초상화들. 왼쪽부터 필리프 4세 왕과 첫 번째 왕비 이사벨, 발타사르 카를로스 왕자와 흰색 드레스의 마리아 테레사 공주(Maria Teresa Infanta 1638-83)

특히 필리프 4세 왕의 두 번째 왕비로서 마리아나(오스트리아)는 원래 첫 번째 왕비 이사벨라(1602-44)가 낳은 카를로스 왕자와 약혼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사벨라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필리프 4세가 뒤이어 왕자마저 갑작스런 죽음으로 잃게 되자 마리아나를 자신의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결국 마리아나(오스트리아) 왕비는 사촌과 약혼 상태에 있다가 돌연 자신의 삼촌이기도 한 필리프 4세 왕과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낳은 첫 번째 딸이 바로 마가리타 공주이고 그 다음 필립 프로스페로를 낳았으나 4살에 죽고 말았다.



돈 카를로스 왕자와 마리아나 오스트리아 왕비(원래 카를로스 왕자의 약혼녀였으나 그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부왕인 필리프 4세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 마가리타 공주의 어머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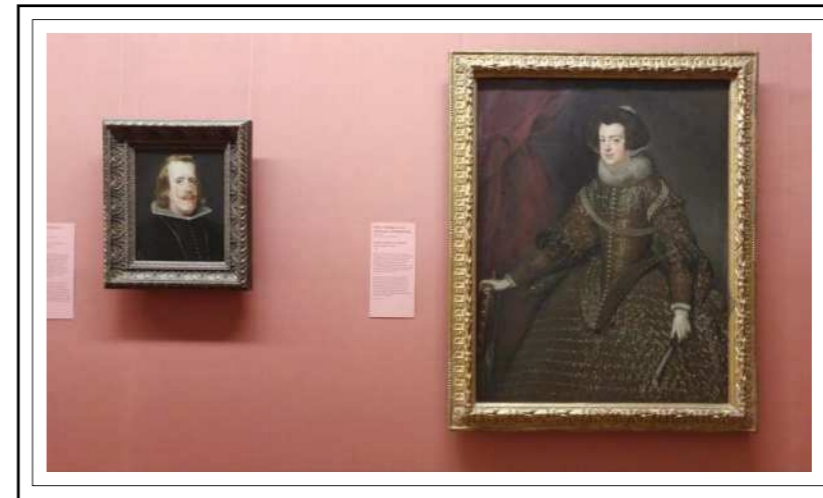


마가리타 공주의 동생,
Philip Prosper(1657-1661), 1659



Margarita Teresa(1651-73),
the eight-year old Infanta, 1659.

마가리타 테레사 공주 역시 일찌감치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 1세와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그녀의 외할아버지인 페르디난트 3세 황제의 요청에 따라 2~3년의 간격으로 어린 공주의 초상화를 그려 비엔나로 보냈다. 이 레오폴드 1세는 마가렛 공주의 어머니인 마리아나(오스트리아) 왕비의 남자 형제다. 이처럼 얽힌 가족관계로 왕권을 유지하려했으나 스페인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는 마가리타 공주의 동생 카를로스 2세(1661-1700)에서 끝나게 된다.



벨라스케스, 필리프 4세(King Philip IV), 1653-56/59와 첫 번째 왕비 이사벨라(Queen Isabella of Spain 1602-44), 1632. 미술사미술관, 비엔나

평소 이상의 그림들에서 사물을 재현하는 벨라스케스의 놀라운 색채와 자유롭고 즉흥적이기까지 한 그의 붓질에 매료돼 있었지만 17세기 유럽 왕실들 간에 난마처럼 얽힌 혼맥과 패권을 놓고 타투는 역사의 단면을 함께 읽는다면 감상자의 감동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소위 인간의 삶을 다루는 흔히 '문사철(文史哲)'이라고 일컫는 인문학이 그림과 관계 맺고 있는 방식이었다.

《스페인 미술에 흐르는 휴머니즘》

필리프 4세의 재위기간(1621-1665)은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가 고향을 떠나 마드리드에 도착한 이후 활동한 그의 전 생애와 겹쳐진다. 그는 죽기 1년 전까지 마가리타 공주의 8세 초상화(1659)를 완성하고 마지막까지 마리아 테레사(1638-83) 공주의 결혼식 준비를 도왔다. 궁정화가로서 남긴 초상화 연작들에서 그는 뛰어난 표현기술을 발휘해 참신한 기법들을 보여주었으며 그밖에 그림들에서도 복합적인 구성과 깊이 있는 주제의 전개를 추구했다. 그 속에서 작가의 시선은 항상 서민들의 삶을 향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와 같은 경향이 17세기 스페인 바로크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만큼 그와 동시대 작가였던 로마서 활약한 리베라(1591-1652)와 또 한 명의 스페인 화가 무리요(1618-82)의 작품 역시 특유의 소박함을 지니고 있다. 16세기 스페인 톨레도서 활동한 엘 그레코로부터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나 신비스럽고 초현실적인 엘 그레코보다 사실주의적이면서 민중적이었던 벨라스케스의 것을 그들 모두 지향했다.

벨라스케스의 대표작 '라스 메니나스'(1656)의 구성은 로코코와 19세기 초 낭만주의를 모두 가지고 있는 프란시스 데 고야(Francisco de Goya 1746-1828)의 작품에서 다시 한 번 반향 된다. 고야 역시 궁정화가로서 카를로스 4세(1748-1819)의 가족을 그렸는데 왕과 왕비 그리고 왕가의 귀족들을 전면을 향하게 배치하고 그들의 뒤에서 대형 캔버스 사이로 얼굴을 감추고 있는 작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개성적인 화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델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개개 인물들의 인상을 정확하게 잡아내려는 작가의 비판적인 정신에 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사실주의 작가의 자격에 해당하며 전쟁과 폭력을 고발하는 후기의 작품들에서 더욱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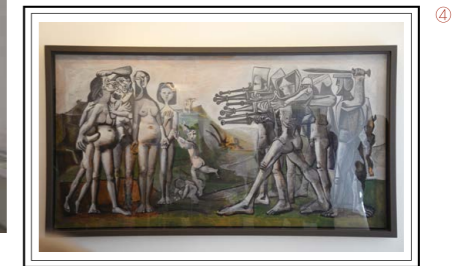
벨라스케스, Las Meninas, 1656.
Oil on canvas, 318x276cm, 프라도미술관



Goya, The family of King Carlos IV(1748-1819), 1800.
Oil on canvas, 280x336cm, 프라도미술관

고야는 바로 '1808년 5월 3일'(1814)에서 마드리드에 진입한 나폴레옹 군대가 저항하던 민중을 학살하는 야만적인 행위의 폭력성을 극적인 드라마로 구현했으며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양쪽에서 활약한 마네의 회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마네는 고야의 작품을 모티프로 1867년 '막시밀리앙 멕시코 황제의 처형'을 제작했고, 그 구성은 다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1951)에서 차용되었다.

스페인 미술에 면면히 흐르는 휴머니즘의 정신과 태도는 20세기 모더니즘의 세계에까지 그 물줄기를 대고 있는 것이다. 피카소는 그의 초기 '청색시대'의 그림에서 거리의 부랑인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던지는 애정 어린 시선에서 진즉에 휴머니즘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1937년 '게르니카'를 그려 나치의 스페인 침략과 공습에 항의했다. 또한 1951년 '한국에서의 학살'로 평화를 짓밟는 전쟁과 폭력에 대한 그 자신의 혐오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회화가 역사에 연루되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 ① Goya, The Third of May, 1808, The Execution of the Defenders of Madrid, 1814, 프라도미술관
- ② 마네, 막시밀리앙 황제의 처형, 1867, 252x305cm, Kunsthalle, Mannheim 부분detail
- ③ 피카소, 게르니카, 1937, 레이나 소피아미술관, 마드리드
- ④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1951, 피카소미술관, 파리



김영동

- 영남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02년, 미학 미술사 전공)
- 매일신문사 근무(1983~1998)
-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사와 미술이론 강의
- '김영동의 유럽미술관 기행'(2014, 10~12) 매일신문 연재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회원
- 옷는얼굴아트센터 예술이카데미 (김영동의 유럽 미술관 기행) 진행
- 저서 「근대의 아틀리에」 (한티재, 2011)

Jazz Festival에서

글 오종대



운 좋게 자리 잡은 이 곳.

소나무 숲에 부서지는 햇살과 바람이 Terence Blanchard의 날카로운 트럼펫과 함께 쏟아지고 있다. 잔디밭에 아예 드러누운 사람들, 선글라스 아래 한껏 밝은 웃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연인들, 음악에 취해 연신 긴 생머리를 흔드는 여인들...

그래 이 곳은 바로 재즈페스티벌 현장이다. 오월의 파란 하늘과 넓은 잔디밭에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페스티벌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음악이 좋은 이유는 Game이 아니고 Festival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Game을 하며 사는지... 승자와 패자, 일등과 이등이 갈리는 올림픽게임처럼 우리의 삶도 늘 경쟁과 승리를 미덕으로 삼지 않았나 말이다. 하지만 음악은 다르다. 음악은 언제나 페스티벌이고 파티이다. 페스티벌은 수많은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고 관객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다닌다.

‘나에게 좋은 음악이 너에게도 좋을 순 없는 법...’

함께 온 친구들이 다른 무대를 보러 떠나고 나 혼자 남겨져도 외롭지 않다.

이곳엔 나와 같은 음악을 즐기는 이름 모를 새로운 친구들로 가득하니까.

(지금도 함께 온 피아니스트 유승호군은 다른 무대로 자릴 옮기고 나 혼자다 ㅎㅎ)

생각해보라, 우린 얼마나 다른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다르다.

하물며 모양새가 똑같은 쌍둥이도 성격과 개성은 다르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린 일률적인 잣대로 비교당하고 경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거기서 조금 앞서기 위해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이긴 사람도 그 허망함에 외로워지고 진 사람도 또 얼마나 분노하고 미워하는지.

어느새 Terence Blanchard는 앵콜곡을 연주하고 있다.

그는 행복한 표정으로 환호하는 관객에게 인사하고 어눌한 한국말로 아마도 무대 올라오기 직전에 배웠을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추억이 될 무대를 마무리 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Corinne Bailey Rae가 올라 올 것이다. 페스티벌이니까!!!

요즘 나는 내가 뮤지션인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음악의 길은 길고 긴 여행 같아서 늘 새로운 길이 나타나 마음이 설렌다.

울창한 숲길을 지나 길고 지루한 터널을 지나다가도 어느새 아름다운 바닷가를 달리고 있다.

계기판의 속도만 보며 달리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주위를 바라보며 달리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기억 할 수 있다.

어쩌면 서로 다른 음악들이 이어지는 페스티벌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여행일거다.

그래, 난 지금 여행 중이다.



뮤지션에게 가장 큰 대가는 공감 아닐까?

이제 서서히 저녁 해가 길게 드리워질 테고 그때부터가 페스티벌의 황금빛 시간이다.

햇빛을 피해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낮부터 마신 맥주 때문인지 아니면 감미로운 목소리에 취해서인지 하나둘 일어나 리듬에 몸을 흔드는 시간.

이젠 옆 사람의 시선도 잊고 저 바깥세상에서 일어나 함께하던 긴장감도 던져버린 것이겠지.

그 누구의 철학이, 그 어느 정치인의 연설이, 그 어떤 집단의 구호가 이렇게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노래가 자기 이야기 같다고 하더라.

음악은 그래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음악에도 공감 할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해본다.

무대 바로 앞에는 안전을 위해 길게 세워진 철제 안전펜스(fence)가 있다. 페스티벌을 즐기는 사람들은 맨 앞줄에서 공연을 보는 걸 ‘펜스를 잡는다’고 말한다. 가끔 지식검색 같은데 ‘000공연 펜스를 잡으려면 몇 시에 가야하나요?’ 같은 질문이 올라오곤 한다.

나도 ³⁾Ramsey Lewis 와 John Pizzarelli의 ‘THE NAT KING COLE TRIBUTE’ 공연이 시작

하기 한 시간 전부터 ‘펜스를 잡기’위해 무대 바로 앞 펜스에 기대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종일 편안하게 잔디에 누워 페스티벌을 즐겼지만 이 무대만큼은 맨 앞줄에서 그 악기들의 생생한 울림을 느끼고 싶어서이다.

⁴⁾Nat King Cole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재즈 보컬이었다.

노래 한다는 것.

아무리 좋은 연주도 노래처럼 공감하긴 어려워서 일까?

‘악기를 연주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언제나 노래하듯 연주하는 것이다.’

그의 노래는 어떠한 연주보다 정교하고 어떠한 시보다 달콤하며 따뜻하게 마음으로 들린다.

언제가 나의 연주가 어찌면 나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기억되고 공감되기를 꿈꾸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스탠딩 공연이니까!

인생에 살면서 재즈 페스티벌쯤 안가보고 산다고 무슨 큰일이야 나겠는가?

하지만 한 번도 안간 사람은 봤지만 한 번만 간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다.

1) Terence Blanchard

모 베티 블루스(Mo' Better Blues)의 트럼펫 연주자이자 5차례 그래미 수상자인 테렌스 블랜치드는 1991년부터 콜럼비아 레코드(Columbia Records)를 통해 앨범을 발매하며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를 만나 그의 영화 음악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영화음악 작곡가로서도 크게 인정받았다. 그는 도발적인 어쿠스틱 오리지널 재즈 넘버부터 50 곡이 넘는 OST 작곡은 물론, 2013년에는 야심차게 재즈 오페라로 데뷔를 하며 독창적인 음악 활동을 구축해왔다.

2) Corinne Bailey Rae

영국의 싱어송 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 2006년 자작곡으로 이루어진 데뷔 앨범을 발표하며 같은 해 BBC에서 실시한 음악 여론조사 'Sound of 2006'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선정되었다. 이 데뷔 앨범은 UK 차트 1위, US 빌보드 차트 4위를 차지했으며 수록곡 'Put Your Records On'과 'Like A Star'는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며 그래미와 브릿 어워드에서 여러 번 노미네이트 됐다. 코린은 2007년 보컬로 참여한 허비 행콕의 앨범에서 조니 미첼의 곡을 완벽하게 해석하며 첫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알 그린, RZA, 노라 존스, 더 룩츠, 허비 행콕, 스티비 윈더, 폴 맥카트니, 에스케란자 스팔딩, 살람 라미 등 많은 뮤지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2014년 발매된 두 번째 앨범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UK 5위, US 7위 앨범 차트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 앨범은 저명한 머큐리 음악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바로 다음 싱글은 코린에게 2번째 그래미를 안겨주며 2012년도 최고의 R&B 퍼포먼스로 각인되었다. 2016년 그녀는 3번째 스튜디오 앨범을 공개할 예정이다.

3) RAMSEY LEWIS AND JOHN PIZZARELLI

램지 루이스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살아있는 랜드마크'라 칭할 정도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즈 아이콘이다. 1965년 ~1973년까지 R&B 연주상, 보컬상, 그룹 재즈 연주상 등 3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까지 발매된 음반 중 5장이 골든 레코드를 수상했다. 50년대 후반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재즈 트리오를 결성해 활동, 재즈 팝, 소울 팝적인 음악으로 대중에게 어필했으며 데뷔 앨범 이래로 현재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을 극복하고 왕성히 활동 중이다. 존 피자렐리는 '기타를 든 냷 킹 콜', '레트로 스윙의 기수'라고 불리는 90년대부터 재즈 신에서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기타리스트 겸 보컬리스트이다.

4) Nat King Cole

냏 킹 콜은 1943년 'Straighten Up and Fly Right'으로 주목을 받은 후 스모키하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전 세계의 재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이다. 'Route 66', 'Mona Lisa', 'unforgettable'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남겼으며 싱어송 라이터 나탈리 콜(Natalie Cole)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 출처 <http://www.seouljazz.co.kr>



오종대

- 현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과 교수
- 네덜란드 로테르담 콘서바토리움 재즈 / 경희대 아트퓨전 대학원 졸업
- 2007, 2008, 2010년 Jazz People Reader's Poll Best Jazz Drummer

제주의 푸름을 그리다

글·그림 리모

● 살다 보면 정말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익숙한 베개 위에서 하루의 스위치를 서둘러 내려놓고, 꼼짝하지 않고 죽은 듯이 잠들어야 하는 그런 날. 깊은 휴식 후에도 몸과 마음의 고단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 늦봄의 가뭄처럼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 섬, 제주로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른 아침의 활주로 위를 거칠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섯덩어리로 만든 거대한 새는 값비싼 연료를 태워 얻은 추진력으로 마침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풍경이 순식간에 아득해졌습니다. 키 높은 서울의 빌딩들이 손톱 크기만큼 작아졌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던 일상의 얼룩들 역시 순식간에 작은 점이 되었습니다. 큰 원을 그리며 섯회하던 비행기가 마침내 그 시선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서울이 멀어지고, 푸른 제주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섬은 제게 낯선 공간이 아닙니다.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꾸준하게 이곳에 드나들어 나름의 추억이 섬 곳곳에 꽤나 박혀 있는 편입니다. 주위의 지인들 중에는 지긋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번도 제주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주라는 곳을 꽤 경험해 본' 외지인인 셈입니다.

● 제주를 찾아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개의 명소로만 기억되기에는 이 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나 다채로웠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로서 제주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이야기를 듣길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전해주는 거대한 치유의 힘과 그 안에서 맹렬히 피어올랐던 인간의 삶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곳을 그림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몽눈이오름 앞에서

제주를 취재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항상 블루(Blue)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블루'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의 푸름,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슬픔, 아픔을 의미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신을 모시는 것이 가혹한 자연환경과 자원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 흔적만 남아있는 마을 터에서는 참혹했던 4·3의 역사의 현장 앞에 그저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이곳의 삶의 이야기가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이 섬이 품고 있는 역사적 시련과 고난 위에 피어난 것이라는 것을 지난 여행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제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걷는 여행, 그리는 여행'이라는 가장 느린 여행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더 깊게 바라보자, 섬은 제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문도지오름 풍경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주의 이곳저곳을 정말 열심히도 돌아다녔습니다. 바람을 타고 내려 뺨을 때리는 소나기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물음들에 대한 해답이 그곳에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걷는 동안은 발끝으로, 그리는 동안은 손끝으로 제주의 풍경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꽤나 고생스러운 여행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은 항상 새로운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매년 신이 났습니다. 제주의 비와 바람과 햇살을 겪는 동안 돌아와 도전해 보고 싶은 것들이 마구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3개월의 취재기간 동안 서른 번 가까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다녀온 저는 언제나 다시 힘차게 달릴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건강한 에너지로 충만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듯 제주에서의 여행은 제게 작은 도전이자 치유의 시간이자 창작의 원천이었습니다.

제주의 드로잉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공간이었던 만큼 이 섬을 하나의 과제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행복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손끝으로 풍경을 기록하는 행위는 섬을 더 깊고 치열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주가 품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풍경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위에 제주를 기록하며, 이 섬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평대리바다



백록담

제주의 감동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대신 연필과 붓을 쥘 겨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섬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된 이야기들을 당신 앞에 풀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비모음 정상에서



사라오름



리모(김현길)

- 여행과 일상을 드로잉으로 기록하는 여행작가
- 달서문화재단 여행드로잉 (동행 프로젝트) 진행
- 사단법인 여행작가협회 회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활동 중
- 현대 리바트 웹진 등에 드로잉 여행기 기고, 다수의 책표지, 지면광고 일러스트 작업
- 38일간의 유럽 여행을 드로잉으로 엮은 에세이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 출간

Art event

'문화만개'에 실리는 단신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공연, 전시, 강좌 및 달서구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70

class



performance



exhibition

cultural art

01

'미술의 숲 - 2016'

달서문화재단 출범 2주년 특별기획 야외조각전인 '미술의 숲-2016'이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열려 지역민들에게 감상과 힐링, 두 가지 선물을 전했다.

소나무정원과 야외공연장, 본관 로비에 분산, 배치된 조각 작품들은 저마다 다른 주제와 형태로 아트센터 곳곳을 빛내며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었다. 8명의 중견 및 신진 작가들, 그들만이 추구하는 개성으로 설치된 작품 11점은 다음과 같다.

김원근의 '길몽', 김성우의 '추락하는 달팽이'와 '숲 문명', 방준호의 'Wind', 이기철의 '마이 디어'와 '마이 베어', 이윤복의 'Infinity', 이일의 '고보트'와 '도시괴물', 정기웅의 '바람의 노래', 정의지의 'Regenesis-moose' 등.

기념비적 오브제가 아닌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 미술을 지향한 작가들의 의도가 엿보인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다.

관람객 이수성씨는 "[당신이 꽃입니다] 전시에서 감동 받고 나왔는데, 야외공연장과 소나무 정원에 전시된 조각품들을 보고는 참 멋진 공간에 어울리는 야외조각전이라고 생각했다"며 "야외공연장 스탠드에 앉아 작품도 감상하고 책도 읽으며 모처럼 만에 여유를 가지며, 한참 동안 바라보다 갔다"는 후일담을 전해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미술의 숲' 전시는 지역민들에게 '예술 작품-그저 바라보기'를 통해 일상에서 함께 느끼고 누리는 문화의 현장으로 기억되었다.

글 | 김은주 사진 | 웃는얼굴아트센터



김성우 추락하는 달팽이 100x60x200cm



숲 문명 173x102x110cm



김원근 길몽 90x80x240cm



방준호 Wind 250x80x200cm /black stone /2015

이기철 My deer 230x10x85cm



My bear 140x130x220cm



이윤복 Infinity 110x114x340cm /Stainless Steel /2013



정기웅 바람의 노래 96x95x260cm



정의지 Regenesis-moose 240x220x140cm
버려진 양은 뱀바, 리벳, 철, 스테인리스 /2015



이 일 도시괴물 140x70x273cm
고보트 100x60x200cm

02
2016
‘장미꽃
필(feel)
무렵’ 개최

2016 ‘장미꽃 필 무렵’이 (재)달서문화재단 주최로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곡장미공원에서 열렸다. 올해 새로운 명칭으로 개최한 ‘장미꽃 필 무렵’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감성 축제문화의 장을 보여주었다. ‘예술이 꽃피다’ 주제로 열린 2016 ‘장미꽃 필 무렵’은 예술인들에게는 열린 무대를, 지역민에게는 특색 있는 예술 관람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민과 함께 문화 예술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채워가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5월 13일(금) 열렸던 장미꽃 필 무렵 콘서트는 어린이 북 퍼포먼스와 사물놀이, 인칸토 중창단, 플라카 k 발리댄스, 일 포스티노의 올드팝과 가요공연, 사랑과 평화의 밴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함께 노래 부르며 뛰고 즐기는 무대를 이어갔다. 14일(토)엔 관객과 함께 춤추는 ‘프로젝트 곧사’ 거리공연과 ‘아멜로’, ‘김영관’(히든싱어), ‘인 더 파티’ 밴드의 버스킹으로, 15일(일)엔 로즈미시 팀의 에어로빅 댄스(이곡1동 주민센터 동호회)를 시작으로 ‘마임 버블쇼’ 거리공연과 ‘악기모여라’(오카리나), ‘사운드포스트’ 중창단의 팝페라 버스킹까지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었다.

특히 14일 오후 2시 대구에서 처음 공연을 진행한 ‘프로젝트 곧사’의 ‘더 체어’는 공연 중 관객과 함께 즉흥댄스를 펼치는 퍼포먼스로 큰 호응을 얻었고, 히든싱어(이승환 편)의 주인공인 김영관씨가 공연을 앞두고 장미공원에 모습을 보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킹 장소를 순식간에 가득 매우고 말았다. 또한 15일 장미공원에서 처음 시도한 ‘웨딩사진대작전-오월의 웨딩’ 이벤트는 아름다운 장미원을 배경으로 4남매를 둔 화목한 부부의 리마인드 웨딩사진 촬영으로 진행됐다. 신청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했으며, 오월의 리마인드 웨딩은 아름다운 장미의 향기 속에서 ‘장미꽃 필 무렵’의 의미를 더해 주는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또 14일 열린 어린이 사생실기대회와 14, 15일 양일간 진행된 향기가득 공작소에는 장미향 석고방향제, 클레이장미, 캘리그라피 책갈피, 장미스탬프 엽서 등 체험공작소를 비롯해 장미차 시음회, 네일아트, 모바일포토 콘테스트가 함께 운영돼 온 가족의 참여로 함께 즐기며, 교육적인 효과까지 더하는 감성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글 | 김은주 사진 | 달서문화재단



03
2016
페스티벌
‘Jazz In
Daegu’



재즈와 월드뮤직을 한눈에...

대구 대표 뮤직페스티벌의 첫 시작을 알리다!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롱홀에서 열린 ‘재즈 인 대구’는 재즈 매니아들의 크나큰 관심 속에 화려한 무대로 펼쳐졌다.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주최로 올해 처음 막을 올린 2016 페스티벌 ‘재즈 인 대구’는 서울 오디오 가이 스튜디오와 아시아 유일 재즈 중심 마켓인 ‘재즈 인 서울’(세종문화회관 개최)의 대구 지역 로드쇼로 진행되었다. 국내외 우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재즈 및 월드 뮤직을 선보이는 동시에 지역의 국제문화행사 개최의 자생력을 배양하고자 기획된 페스티벌이었다.

올해 첫 ‘재즈 인 대구’에는 총 8팀이 참가했다. 대한민국 정상급 재즈 트리오 ‘남경윤 트리오’가 7일 첫 공연을,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재즈 그룹 ‘홍정수 재즈 프로젝트’가 8일 첫 무대를 열어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의미도 함께 부여했으며, 지역 재즈 매니아들의 크나큰 관심 속에 화려한 무대로 펼쳐졌다.

해외 재즈 팀들의 연주 역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

어냈다. 브라질의 소울이 담긴 기타와 트럼펫 연주로 유명한 ‘질레노 산타나 & 투니코 굴라트’, 스페인 최고의 즉흥 재즈 트리오 팀 ‘숨라’, 바이올린과 기타로 표현하는 거친 인스트루멘탈 사운드를 들려주는 러시아의 ‘투 시베리안스’, 다이내믹한 베이스 라인과 독특한 하모니가 특징인 모잠비크의 ‘플린트’를 라인업으로 구성하며 매회 획일화된 공연 형태를 지양함으로써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대표 포크 음악 스타인 ‘트래드 어택’(7일)과 최근 일렉트로닉 스윙밴드로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체코의 ‘마이디 라비카드’(8일)가 마지막 공연에 등장해 점점 더 뜨거운 무대를 열어가자, 관객들도 모두 스탠딩으로 연주자와 함께 뜨거운 열기를 온 몸으로 표현하며 음악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게 만들었다.

이들 동안 화려하게 수놓은 ‘재즈 인 대구’ 마지막 공연을 보고 행사장을 떠나는 관객들 입에선 “기대 이상”, “대박”, “내년에도 또 할 거죠?”라며 감탄의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글 · 자료 | 이성욱(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

젊은 작가들의 실험 프로젝트 <Co-Work>展



현대미술계의 경향을 보여준 <Co-Work>전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려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Co-Work>전에서는 보여준 작품들은 작가들의 실험정신이 그 자체였으며, 젊은 예술가들이 협업의 작업방식으로 현대미술계의 한 기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하는 의지의 표상이기도 했다. 작가 1인 창작 예술로 비춰지는 미술계의 일반적 인식에 얽매이지 않는 작업방식을 시도한 <Co-Work>전은 협업 시스템에 의한 제작방식을 보여주었다. 「로컬 포스트(Local post)」와 「투 컴퍼니(T.u Company)」 소속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성을 하나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담아내며 완성해가는 창작 방식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로컬포스트」(김미련, 김승현, 김주권, 손영득, 오정향, 정진석, 황인모, 권혁규, 방정호, 노아영)는 예술 장르 간의 경계, 작가와 관객의 경계, 국가 간의 경계를 없애고 소통과 통합을 위한 멀티미디어 아트를 지향하는 다원에

술그룹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의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작품을 만들어갔다. 그 중 'Zero-Calorie Riding'은 우리에게 다면적인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작품으로 자르고 합성한 수작업 공정을 거친 다양한 이미지들을 디지털 영상으로 재가공하며, 그 가공된 이미지들을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서 소비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관람객과 인터랙션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투 컴퍼니」(최성규, 장종용, 백장미, 김정희, 하윤주, 류동인, 신명준, seesaw, 신준민, 이민주, 권효정)는 장르와 이념을 넘어선 '투'라는 가상 인물을 통해 '투'의 사고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유토피아의 꿈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작가들은 설치조각 'Body of T.u',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 'Polis'에서 철과 다양한 색의 아크릴판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가진 가상의 예술가 '투'를 통해 '낯선 곳의 경험과 인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면서 설치된 구조물을 매개로 관람객과 대화를 시도했다.

글 · 자료 | 이정란(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기획)



Zero-Calorie Riding interactive media installation, 가변크기, 2016



2016 '스'문화콘서트

동네 예능인이 전하는 문화예술 공감 100배!

지역민에게 문화의 일상화를 전하고자 마련한 「'스'문화콘서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지역 곳곳을 찾아가며 문화예술을 나누고 있다.

지난 6월 1일 오후 7시 월곡역사박물관 야외에서 열린 올해 첫 '스'문화콘서트는 '의병의 날'을 테마로 개최해 '호국의 달'의 의미를 지역민과 함께 되새겼으며, 또한 6월 4일에는 두류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과 동네 예능인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안전마을 만들기' 주제의 '스'문화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찾아가는 「'스'문화콘서트」는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상시문화마당'과 테마별 '수시문화마당', '희망달서 거리 버스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문화마당은 6월(분리어린이공원), 7월(월광수변공원), 8월(와룡아래공원)에 열리며, 수시문화마당은 6월~10월 중 기획하고 있다.

희망달서 거리 버스킹은 6월~9월 중 거점별(두류젊음의 거리, 월광수변공원, 계명대학교 레드블록, 성서아울렛 차 없는 거리)로 각 4회 진행할 계획이다.

「'스'문화콘서트」는 지역 예능인들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와 예술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희망을 전하는 문화의 일상화'를 만드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스'문화콘서트의 무대를 멋지게 채워줄 동네 예능인들은 지난 3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으며, 올해 선발된 22개 팀과 지난해 선발된 31개 팀, 총 53개 팀으로 구성해 곳곳에서 지역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나누게 된다.

※ '스(시웃)문화콘서트 :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희망을 전하는 문화공연

글 · 자료 | 달서구청 문화체육과



2만년을 이어온 '선사시대'로 여행이 시작됐다.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2016 [선사문화체험축제]가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대천동 한샘공원에서 열렸다.

20일 오후 1시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열렸던 선사학술대회. '달서 지역의 문화재와 그 활용방안'을 주제로 유명하 교수(영남대), 남익희 연구원(세종문화연구원), 정재영 교수(영남대), 윤영일 교수(계명대) 등이 '달서지역의 선사문화' '삼국시대의 유적과 활용 방안' '달서지역의

지명유래' '문화재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관광자원화와 선사유적의 재조명'을 주제로 김권구 교수(계명대 행소박물관 관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수현(계명대), 이국성 회장(달서 선사유적사람들), 발표자 전원이 참석해 달서 지역에 남아있는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유적의 가치와 문화재 발굴·보존사업 및 관광자원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도심에서 펼쳐지는 선사문화체험기

1 '선사시대 여행'에 초대되다

21일 '선사유적공원'과 '한샘공원'에서는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온몸으로 느끼는 2016 [선사문화체험축제]가 하루 종일 열려 그야말로 선사시대 여행이 시작됐다. 국가사적 제411호 입석이 있는 '선사유적공원'(진천동)에는 오전부터 체험부스마다 어린이들과 부모들로 가득했다. 선사 장신구 만들기, 등 만들기, 호피무늬 옷 만들어 입기, 셀프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들로 참가자들과 진행자들은 모두 다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또 청동기유물 복원지인 '한샘공원'(대천동)에서는 유구·유물 실측조사와 발굴체험을 비롯해 고인돌 만들기 등 실제 선사시대 유물을 발굴하는 체험부스를 진행하며, 달서문화해설사의 재미난 해설까지 곁들이자 참가자들은 마치 발굴단이 된 것처럼 신기해하면서 즐거워했다. 또한 지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는 선사프리마켓 "바리바리돌장"과 "달리는 돌돌버스"를 운영하며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 각각 자신만의 '선사문화체험기'를 남겼다.

2 선사시대 라스코 동굴벽화(사진)를 재현하다

21일 오후 6시30분,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입구 골든파크빌라트 앞 구석기 라스코 동굴벽화 제막식에는 지역민과 어린이, 달서구청원,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함께 모여 5층 빌라 벽면에 그려진 대형 동굴벽화 앞에서 선사시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사시대 대표 유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라스코 동굴벽화의 재현은 2개월간의 주민 동의를 거쳐 로봇페인팅기법으로 제작됐다. 선사시대 벽화 제막식에서 입석 제단까지 펼쳐진 선사무용제는 주민들과 함께 선사유적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의미를 둔 퍼포먼스였으며, 이어 오후 7시부터 펼쳐진 선사음악회로 선사문화축제를 마무리했다. 대금, 건반, 거문고 등 전통과 현재를 표현한 다채로운 연주와 선사 옷을 입은 빨리팀의 화려한 공연, 퓨전 국악 팀의 버스킹 공연 등은 선사문화축제의 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어지는 선사시대 탐방!!!

선사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한 선사시대 탐방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년 4~5월에는 선사문화축제를 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선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사유적공원에서는 매월 세 번째 토요일마다 '바리바리돌장' 선사프리마켓을 열어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선사시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 | 달서구청 문화체육과 정리 | 김은주

2만년을 이어온 달서구 선사시대로 여행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선사인(先史人)들이 살기 시작한 달서지역은 청동기시대 유취촌 유적, 대구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동굴이 발견되어 대구의 역사를 1만년으로 끌어올린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소중한 달서문화유산 발맞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기간 2016. 5월 ~ 11월, 오전 10시 ~ 오후 2시, 오후 4시 (비행일 제외는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선사시대로, 한샘산정세 최소 5명 이상, 100명 이하」 작성 후 달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aseo.daegu.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달서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FAX: 053667-2179 / e-mail : dmplord@daegu.kr, 방문 신청

유니폼착용 희망자는 달서 문화해설사 배치 후 개별도로 ※ 매일 둘째 목요일(A코스), 넷째 목요일(B코스) 오후 2시 상시 배설(1명 이상 신청시)

탐방코스

- A코스** 선사유적공원(진천동) ~ 고인돌소공원(진천동) 1시간 소요
- B코스** 한샘공원(대천동) 청동기유적지 ~ 선돌공원(갈암동) 1시간 30분 소요
- 달돌버스**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 ~ 14시 A, B코스 연계 버스 운행 (5 ~ 20인 이하 청소년 대상, 4/18 이후 신청 가능)



※ 문의 : 달서구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 053)667-2191~3

2016 신진작가 공모 초대전

지역 미술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 계승해 나갈 패기와 참신함을 갖춘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을 수용하고자 2016 신진작가 공모·초대전, 참여 작가들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2016. 6. 27 ~ 7. 3

- **공모자격**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983. 1. 1 ~ 1981. 12. 31생의 작가
- **공모부문**
회화, 판화, 조소, 공예, 설치, 미디어 등
- **접수방법**
소형 양식의 신청서, A4 size 포트폴리오
(작품사진 10매 이상, 작품사진 바탕에 명제 등 작품설명용 기재)
※ 신청서 : 웃는얼굴아트센터 홈페이지(www.dscf.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심사방법**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 **지원규모**
 - 선정작가 6명
 - 전시 작품별 제작 및 초대전시 개최
 - 1인당 1개 개인부스 사용 / 부스당 약 72~85㎡(약22~26평)
 - 작품운송비 등 소정금액 지원
- **전시일수**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유효함
- **심사결과발표**
7월 초순 선정 작가 개인별 홍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전시기간**
2016. 7. 28 ~ 8. 18
- **전시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 두루 갤러리
- **문의처**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 053-584-8720)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웃으며 함께 달려요!
Smiling Dalseo Marathon 2016

제10회 달서웃는얼굴 마라톤 대회

2016. 9. 25(일) 08:30
호림 강나루공원

종목 하프공인, 10km, 5km

신청 2016년 5월 15일~8월 16일
TEL. (053)635-8681
FAX. (053)635-8684
www.smilingmarathon.kr
www.웃는얼굴마라톤.kr

